

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月刊 3
2010년 3월 1일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발행·편집인 洪元基 인쇄인 신명옥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02)732-4797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02)2001-7621

E-mail: kjcl405@hanmail.net

Fax 02)730-1270

2008년 8월 5일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SINCE 1977

www.kjclub.or.kr

제 288호

한국TV방송 '正道' 찾아야 한다

국민의 요정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한 지난 2월24일, 공중과 방송사간 중계권 다툼으로 TV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없었던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포털과 아프리카 TV(www.afreeca.com)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생한 현장을 지켜보았다. 전 자신문 조사에 의하면 이날 온라인 중계를 본 전체 접속자수가 총 350만명에 달했다고 했다. 또한 동영상 검색 업체인 엔씨즈에 따르면 김연아 관련 동영상은 14만개로 동영상의 종류만도 2만 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방송사들 간의 이기적인 다툼에 지치고 평일 오전시간에 TV를 보기 어려운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핸드폰 등 다양한 뉴미디어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실시간 경기를 볼 수 있고, 미처 생중계를 보지 못 했다 하더라도 다시보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원하는 콘텐츠를 편한 시간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리한 군중(smart mob)'으로 진화되고 있다.

요즘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고 있는 2010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일본을 당당히 제치고 아시아 최강 동계 스포츠국가임을 재삼 확인시켜주고 있기도 하다. 금메달을 딴 한국의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 애국가를 연주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국민들의 가슴에는 뭉클한 감정이 솟아나게 마련이다. 이처럼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인 동시에 우리 국민들에게도 자긍심을 갖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동계올림픽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마음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바로 지상과 방송사들의 올림픽 중계권 다툼 때문이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지상과 방송사들 간에 중계권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SBS에서만 동계올림픽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전파의 낭비를 줄였다는 주장과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 권리가 침해됐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책임을 어느 한 방송사에게로만 돌릴 수는 없다. SBS가

방송 독점권을 남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KBS와 MBC가 동계올림픽 소식을 감정에 치우쳐 지나치게 축소해서 보도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 2월14일 쇼트트랙 1500미터에서 이정수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렸지만 KBS와 MBC는 이

특별기고



이 민 규

· 중앙대 신문 방송대학원장

소식을 단신으로 짧막하게 처리하고 넘어간 것이다. KBS는 이정수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메인 뉴스가 아닌 스포츠 뉴스에 동영상 없이 스틸사진을 사용하여 보도했다. 그런가 하면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30초가량의 짧은 시간을 할애해 금메달 소식을 알렸다. 지금까지 모든

지상과 방송사가 올림픽 메달 소식을 크게 보도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SBS가 중계권을 독점했다고 해서 타 방송사가 중요한 올림픽 소식을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보도하는 행태는 시청자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기본적 의무는 뒷전으로 한 채 방송사들 간의 이기적인 자존심 싸움으로 비취질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스포츠 행사 중계권에 얽힌 방송사들의 다툼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요한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코리아 풀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우리 방송계의 현실이다. 1996년에는 KBS가 아시안 컵을 단독 중계했고, MBC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의 아시아 지역 예선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박찬호가 출전하는 메

올림픽 중계권 쟁불전 싸움에 실망 영리한 시청자 인터넷으로 몰려가



모태범선수가 밴쿠버 올림픽 폐막식에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저리그 경기를 단독 중계하였다. 모든 방송사들은 하나같이 시청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시기에 시청자를 배려하지 않고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실망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가 점차 그 세를 넓혀가는 지금, 서로 힘을 합치지는 못할망정 뿔뿔이 분열되어 서로 견제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시청자들의 신뢰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방송사들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선수들의 선전에 힘입어 동계 올림픽 중계도 평정심을 되찾고 있는 듯하다. 관련 기관의 중재노력과 사회여론의 힘을 받아 그간 비협조적이었던 KBS와 MBC도 주요뉴스에 올림픽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SBS 또한 그동안 짧은 자료 테이프 제공에서 시간을 늘려 타 방송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서 더 이상 방송만이 독점적으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첨단 글로벌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영민한 시청자들은 애플의 아이폰 등으로 전 세계를 휘돌아 원하는 영상을 광고의 간섭 없이 마음껏 볼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을 방송관계자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4]

국민 접근권 외면한 올림픽 중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치솟고 있고 이와 더불어 SBS의 단독 중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풀 합의를 깨고 단독 방송권을 딴 SBS(실제로는 자회사인 미국의 SBS인터내셔널)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밀려난 KBS, MBC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쟁에 질때 대비 했어야

한국내 중계권을 묶어서 협상하려던 방송 3사의 코리아 폴도 올림픽 방송권의 한 협상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아래 경쟁에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했어야 하고 경쟁에서 밀렸을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했어야 했다. 치열한 경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 중계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각오로.

이런 살벌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 스포츠 시장에서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SBS 단독 중계는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하겠다.

다만 어느 방송사가 올림픽 방송권자가 되느냐의 문제였고 이른바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예견돼 왔었던 문제였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길러주는 스포츠, 그 집합체인 인류의 제전 올림픽도 요즘같이 치열한 경쟁과 시장에 알몸으로 노출된 상태에서는 언젠가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필자는 그 언젠가가 밴쿠버 올림픽이 됐을 뿐이라고 본다.

스포츠가 단순히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길러주는 기능을 벗어나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엄청난 비즈니스가 된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프로 스포츠는 물론이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꽃이라는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었고 올림픽이 오히려 앞장 서 비즈니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경이다.

특히 방송에서의 스포츠는 엄청난 비즈니스이고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경쟁이 심한 시장이 되다보니 과거에는 방송이 스포츠를 키워나가는 기능을 가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스포츠에 매달리는 형편이 됐다.

밝혀진 바로는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는 2010년 동계올림픽과 2012년 하계올림픽, 2014년 동계올림픽과 2016년 하계올림픽의 방송권을 코리아 폴로 2005년부터 IOC와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SBS의 미국 내 자회사인 SBS 인터내셔널이 본사도 모르게 2006년 5월에 IOC와 한국의 방송권을 독점 계약했다는 것이다.

뒤통수 맞은 코리아 폴

이 과정에서 코리아 폴이 제시한 방송권료 6,300만 달러보다 SBS 인터내셔널은 950만 달러를 더 제시해 한국의 독점방송권을 따 낸 것이다.

인류의 제전인 올림픽을 통해 돈 맛에 길들여진 IOC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별 폴보다는 세계 유수의 메이저 방송사나 스포츠 이벤트사의 경쟁을 통

해서 방송권료를 챙겨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방송계는 이런 냉혹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코리아 폴에만 매달리다 속된말로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기보다



오 건 환

- 본회 회우
- 전KBS 스포츠국장, 파리 총국장

국제 스포츠시장 치열한 경쟁서 패배 구차스런 변명으로 시청자 짜증 불러



밴쿠버 올림픽 화려한 폐막식. <연합뉴스 제공>

아마도 경쟁이 무서워 코리아 폴이란 엉성한 사슬에만 매달려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방송사는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환경과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방송권료가 터무니 없이 올라가는 것을 막느냐 하는 문제와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즉 요즘 한참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 방송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는데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풀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방송권 계약이 이뤄진 것이 2006년인데 지금까지 보편적 접근권이 실현되는지 여부도 판단하지 못한채 이번 중계를 통해 조사를 마치고 월드컵 축구 대회부

의무를 다 했어야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떠한 행정 지도력을 발휘해서라도 국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편리하게 올림픽 중계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이런 노력을 다 하지 못한 KBS와 MBC가 지금 와서 뉴스 시간을 통해 날이면 날마다 SBS가 올림픽 취재조차 방해하고 화면도 제공하지 않아서 올림픽 뉴스를 제대로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패자의 구차스런 변명이고 시청자를 짜증나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가 경험한 올림픽 중계권 협상은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얘기였다.

1994년 잠시 KBS의 스포츠 국장을 지낸 적이 있고 공교롭게 올림픽 중계권 협상 시기와 맞물렸다.

그때도 지상파 3사가 코리아 폴로 협상을 했는데 스포츠 문화인인데다 갖 스포츠 국장이 된 필자가 KBS라는 이름때문에 간사가 됐다.

3社 적극적 협조가 관건

혼자서 현지 출장을 갈 수도 있었지만 일생을 스포츠 뉴스만 다뤘고 수없이 많은 방송중계권 협상 경험이 있는 SBS의 박세호 국장과 필자보다 스포츠 국장이 훨씬 선배인 MBC의 하영석 국장과 함께 현지로 가서 협상을 벌여 중계료를 별로 올리지 않고 방송권을 따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공동 협상장 안에서 철저히 필자를 통해서만 발언하는 등(물론 전문 통역사도 함께) 창구를 일원화하고 발언은 3명이 합의한 범위 안에서만 하는 등 공동 협상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이뤄낸 성과였다.

물론 협상단 3명의 인간적 신뢰도 협상의 성공 요인이 됐겠지만 무엇보다 경쟁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아 IOC가 방송사 개별 협상이 아닌 지역별 쿼터를 적용해 대륙별 방송 연맹이 받은 쿼터 내에서 우리는 아시아방송연맹(ABU)과 결론을 냈기 때문이었다.

이때 이미 FIFA는 대행을 통해 방송권료를 단번에 4~5배씩 올렸고 대행사는 방송사 개별로 협상을 벌여 경쟁을 유도하던 때였다. 다시는 이런 허술한 중계권 협상은 없을 것이다.

필자는 스포츠 국장직을 발령받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포츠는 비즈니스입니다. 더구나 방송 스포츠는 엄청난 비즈니스입니다”는 말을 사장에게 했다. 그러니까 스포츠국을 보도본부 안에 두어 뉴스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본부 편제를 만들어 스포츠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해 궁극적으로 독립된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옳은 방향이 될 것이라 건방진 소리를 했다.

글쎄, 그때 필자가 한 얘기가 현실로 됐으면 이번 동계올림픽의 중계를 어느 회사가 맡았을까? 

올림픽기자의 밴쿠버 현장 감회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은 없다

나는 오륜(五輪)만 보면 가슴이 뒹다. 올림픽 환희의 순간을 너무 많이 보았고 걱정과 감동의 현장을 함께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프레스 올림피언'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여름 올림픽 취재 4차례(몬트리올, 서울, 애틀란타, 아테네) 겨울올림픽 참관 3차례(솔트레이크 시티, 토리노, 밴쿠버) 이 밖에 IOC와 ANOC총회 참가 5차례의 경험이 있기에 그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올림픽 아카데미에 나가 몇 차례 특강도 했고 '올림픽을 말한다'라는 책도 출간했으니 말이다.

여기에 더하여 나는 언제나 역사의 현장, 멋진 승부의 중심에 있고 싶었다. 그것은 한국신문의 개척자였던 보스의 가르침이기도 했다. 1970년대 IOC위원의 한 분이었던 장기영(張基榮) 한국일보 사주는 오투기 정신과 함께 현장주의를 강조하곤 하셨다. 그런가하면 신문 근대화를 이끈 홍진기(洪璉基) 중앙일보 회장은 승부정신과 제일주의를 심어주셨다. 바로 이 가르침이 올림픽 현장을 뛰게 한 동기부여가 된 셈이다.

1976년 당시 장기영 사주는 몬트리올을 떠나면서 "우리나라 첫 금메달이 나오든, 여자배구가 4강전에 오르면 즉시 나에게 먼저 전화를 걸라"고 지시했다. 나는 사진기자 완장을 차고 양정모 경기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빨리 송고할 수 있었다. 훗날 폴 약속 위반이 아니냐는 질책과 시비가 따르긴 했지만 역사적인 순간의 기자정신에 추호의 가책이나 거리낌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다.

이번 밴쿠버 겨울올림픽에는 말하자면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자격으로 ID카드를 받아 참관할 수 있었다. 지난날 KBS에 이어 이번엔 SBS의 도움을 받았다. 밴쿠버 곳곳의 경기장을 돌면서, 특히 기자석에 앉아 보도 자료를 받아보면서 깊은 감회를 느끼곤 했다. 이제 곧

기자 반세기로 접어드는 노년에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장의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하면서 이 행복감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

밴쿠버의 큰 기쁨은 두말할 것 없이 뜻밖으로 쏟아진 금메달, 그 중에서



이 태 영
• 본회 부회장
• KOC국제위원장

연아에게 중압감을 떨쳐버리는 냉정함과 흔들림 없는 평상심'을 달라고 빌었던 것이다.

나는 김연아의 우승을 양정모의 대한민국 첫 금메달이나 황영조의 마라톤 금메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온 국민이 애타게 갈망했으며 큰 소리로 세계에 자랑

치고 싶다. 더구나 밴쿠버에 와서 대한민국 유니폼을 입고 응원에 열을 올리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내일 여의도에 돌아가 또 그 지겨운 혈투 정치싸움, 말도 안 되는 세종시 몽니를 부릴 것인가"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한국정치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포츠정신과 글로벌 마인드로 반성해보자. 올림픽에서 무언가 배워야 한다.

밴쿠버의 프레스센터로 돌아보면 코리아에 대한 인식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길거리에서 많은 아시아계 사람들을 만나지만 태극마크를 단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이다. 빙상강국임을 자랑했던 일본은 금메달 하나 없이 침묵한 표정이고 수적으로 단연 우세한 중국 사람들도 한국의 놀라운 기세에 주눅이 들어 있는 듯하다. 하기는 스포츠대국 러시아도 위세를 잃은 지 오래다. 두 차례 올림픽 개최국으로 금메달이 없었던 캐나다도 이번에 비로소 이름을 올려놓았다고 좋아하지만 이번의 개최권을 밴쿠버가 아니라 한국 평창이 따냈다면 훨씬 더 멋지게 치를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크다. 우리가 유치싸움에서 러시아 소치에게도 진건 당시 푸틴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정치적 싸움의 결과일 터이지만 이른바 '겉 모르는 쾌속세대'라는 우리 젊은이들의 기세를 보면 러시아에도 뒤질 게 없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밴쿠버 겨울올림픽은 분명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 그보다 어떤 자신감을 안겨 주었다. 쇼트트랙을 포함하여 빙상에서의 짜릿한 승리의 쾌감,

납득할 수 없는 판정의 불이익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너그러움도 확인해 주었다.

이젠 우리에게 넘지 못할 벽은 없어 보인다. 외신들은 '서프라이즈' 또는 '미라클'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미스터 리' 같은 코리아의 질주본능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위대한 승리'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밴쿠버에서>

國格상승보다 더한 민족 우수성 과시 혈투기 정치판 반성계기 될 순 없는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연아 선수의 매혹적인 연기.<연합뉴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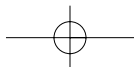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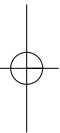
특히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우승, 그야말로 '빙상여왕의 대관식'이라는 표현처럼 감동적인 시상식이다. 미국의 어느 방송해설자가 "여왕폐하 만세"라고 흥분했다고 하지만 나는 이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연기를 본 적이 없다. 나는 또 이번처럼 가슴 조이면서 경기를 본 적이 없다. 김연아가 링크에 들어가며 성호를 그을 때, 함께 기도했다. 우리 방송 해설자가 이승훈의 1만 미터 금메달 순간,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코멘트해서 말이 많았지만 나는 '김

할 수 있는 값진 승리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어떤 부국(富國)도 부럽지 않은 빙상 전 분야(스피드, 피겨, 쇼트)의 금메달은 곧 선진국 진입을 만천하에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메달레이스 종합순위가 문제가 아니다. 스피드 최단거리 500미터 남녀 동반우승, 최장거리 이승훈의 스타등극, 여기에 피겨 여제(女帝)의 탄생까지-이제는 국력(國力)을 따지기보다 국격(國格)을 논한다지만 이보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하며 위대한지 큰소리로 외

할 수 있는 값진 승리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어떤 부국(富國)도 부럽지 않은 빙상 전 분야(스피드, 피겨, 쇼트)의 금메달은 곧 선진국 진입을 만천하에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메달레이스 종합순위가 문제가 아니다. 스피드 최단거리 500미터 남녀 동반우승, 최장거리 이승훈의 스타등극, 여기에 피겨 여제(女帝)의 탄생까지-이제는 국력(國力)을 따지기보다 국격(國格)을 논한다지만 이보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하며 위대한지 큰소리로 외



부회장 상근·분과위 중심운영 본회 이사회, 사업계획-실행예산확정

대한언론인회는 2월 12일 제17대 회장단 출범이후 첫 이사회를 열고 금년도 사업계획확정과 동시에 실행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부회장이 번갈아 1명씩 상근하기로 하고 회 운영을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한층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부회장단이 각 3개 분과위원회씩 관장하기로 했다.

특히 6·25 납침 60주년을 맞아 남북 언론인 송환 및 생사확인 캠페인과 아울러 6·25참전 회우와 종군기자 합동 간담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은 종전대로 시행하고 '언론인장'은 유가족이 원할 경우 발인 하루 전 많은 회우들이 참석하여 추도식을 거행하기로 운영 방법을 바꾸기로 했으며 바둑동우회도 새로 결성, 취미활동을 돕기로 했다.

기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관행적으로 추진 해오던 사업들은 종전대로 추진.
- 사무실 완전 개방, 회원 전용 컴퓨터 설치 및 집필 공간 확보

- 건강검진 진료 과목 확대 실시, 매월 건강강좌, 회보에 건강칼럼 난신설,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 1박 2일 건강 여행시행.
- 역사탐방 체력단련, 6·25 전적지 순례.
- 대토론회와 아울러 포럼(세미나) 자주 개최.
- 남북 언론인 송환 및 생사확인 촉구 캠페인, 6·25 참전 회우, 종군기자 합동 간담회 개최. (6·25 참전 언론인은 본회 사무국으로 4월 초까지 '참전용사증' 사본 제출 바람)
- '언론인장'은 유가족이 원할 경우 발인 하루 전 추도식으로 거행.
- 회보 '대한언론' 정론 기조 유지, 회원 정보 목록 충족.
- 산악회에 이어 바둑 동우회 결성.
- 부회장 상근, 분과위원회 활성화. (부회장 업무분담, 분과위원장 포부 별항 참조)

부회장 업무 분담 및 출근 요일

이태영(월요일) - 전문, 사이버, 특별사업
정기정(화요일) - 발전기획, 후생복지, 법규
이병대(수요일) - 원로, 자격심사, 행사집행
윤기병(목요일) - 복지기금, 홍보 섭외
김성배(금요일) - 총무, 재무(회계), 회보, 논설



대한언론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2010년도 첫 이사회.

2010 시산제 북한산 초대 3월13일 오전 10시 30분 불광역 2번 출구

입춘도 지나 어느덧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회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는 아래와 같이 경인년 새해 시산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홍원기 회장 취임 후 첫 번째로 갖는 산악회 행사인 만큼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래>

- 산행지 = 북한산 능선 (구기터널 입구 1시간 소요)

- 시산제 = 2010년 3월13일 토요일 오전 11시30분
- 집합장소 3월13일(토)오전10시30분 지하철 3호선 불광역 2번 출구 광장(시간 엄수) ◇평생회비 미납 회우는 시산제때 꼭 납부 바랍니다
- ※뒤풀이 장소 연신내소재 명동보리밥집 (02)352-3392

3월 건강포럼 20일 개최

올 첫 모임 23명 참석

올 들어 첫 번째 건강포럼이 지난달 20일 명동 이운수 비뇨기과 로비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홍원기 회장을 비롯, 윤익한 한기호 회장 상담역, 정운종 상임이사 등 새 집행부 임원들과 멀리 강원도 양양에서 달려온 김집 회우 등 모두 23명의 회우들이 참석했다.

참석 회우들은 건강포럼의 전임강사인 이운수 박사의 '노년기 건강과 부부성관계'에 관해 한 시간여에 걸친 강연을 들었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등 매우 진지한 분위기였다. 회우들은 특히 자신이 겪고 있는 애로점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했고 이운수 박사는 하나하나 성의 있게 답변해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했다. 이날 이운수 박사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남성 호르몬 역할에 대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력은 남성호르몬과 깊이 연관이 돼있다면 50대 이후 남성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60대 이후에는 근력이 떨어지고 질병이 많이 생기며 기억력도 떨어지고 특히 성욕조차 잃게 되며 우울증도 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호르몬(바르는 것, 먹는 것, 붙이는 것, 주사)을 보충해주면 잃어버린 남성이 회복될 수 있으나 이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조깅이나 속보, 등산 같은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시중에 해구신, 보신탕, 뱀탕, 용봉탕, 독계탕 등이 정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나 특별히 정력에 좋

은 음식은 따로 없고 평소 쇠고기보다는 흰 살코기 즉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류를 먹고 과일, 포도주와 암을 억제해주는 콩과 비뇨기과에 특히 좋은 토마토를 기름에 볶아먹으라고 권했다.

그리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나이에---"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해서 이럴 경우 아예 성관계를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남성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약을 복용하되 우선 호르몬제 복용 등으로 호르몬이 생성되도록 해서 남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포럼은 앞으로 포럼운영에 대해 "포럼 출석에 열성인 회원에 대해서는 건강포럼 여행(일부 회비 부담), 전립선 검사, 종합검진 등을 무료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포럼이 끝난 후 많은 회우들이 강사인 이운수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근에 있는 돌돌치킨 집에서 생맥주와 소주, 프라이드치킨을 들며 못다 한 질문과 현역 기사시절 무용담 등을 나누며 오후 한때를 보냈다. 이날 경비는 홍원기 회장이 부담했다. 특별히 강원도 양양에서 건강포럼에 참석하기위해 먼 길을 달려온 김 집 회우에게 감사드린다.

3월 건강포럼은 20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부터 역시 명동 을지로 입구 외환은행 앞에 있는 이운수 비뇨기과에서 열린다.

글·이보길 행사집행위원장



이운수 박사의 강의를 경청하는 회우들.



건강칼럼 강의를 듣고 난뒤 푸짐한 뒤풀이.

親李・親朴 소리만 들어도 신물난다

현명한 민족은 역사적 교훈에서 배우고, 우매한 민족은 역사적 실수를 되풀이한다는 것이 현격한 차이점이다. 올해 2010년은 공교롭게도 경술국치(庚戌國恥)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6·25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해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인 1910년에 우리 선대는 나라를 지킬 능력이 부족하고 주변열강의 동향을 살피는 눈이 어두워서 주권을 일본에 통째로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다. 또 60년 전에는 나라의 울타리를 허술히 한 나머지 북한 공산주의의 무력남침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3년을 끈 이 전쟁으로 국토는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남북한 쌍방을 합쳐 자그마치 300만명에 가까운 인명이 희생된 인류역사상 유례가 드문 비극을 체험했다. 이 같은 기록적 인명피해는 미국의 남북전쟁 희생자 수의 5배를 넘는 것이다.

임진왜란이나 6·25처럼 국운을 좌우할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에 반드시 전조증상이 있게 마련이다. 임란 때도 그랬다.

일본은 조선에 대해 이른바 정명가도(征明假道)카드를 들이대며 수락을 강요했다.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 데 길 좀 빌려달라는 것이다. 그 요구가 거절당하자 일본은 바로 조선을 친 것이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豊臣)히데요시

는 백년간 계속된 전국시대를 평정하고 통일국가 수립한다. 도요토미는 오랜 전란으로 강해진 지방영주들의 힘과 불만을 의부로 발산하기 위해 조선을 정벌하고 명(明)까지 치려는 대륙진출의 야심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물론 한일 병합(1910년) 이전에도 그런 증후군들이 여러 경로에서 나타났다.

병합 5년전인 1905년, 미국과 일본이 비밀리에 체결한 ‘카쓰라 테프트 밀약’이 그중 하나다. 일본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가 만나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강점을 양해하는 대신에 미국은 일본의 대한제국(조선) 식민통치를 묵인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일제와 미국이 필리핀과 한반도를 하나씩 나눠 갖기로 한 천인공노할 야합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권까지 빼앗는 ‘을사늑약’도 강제로 체결된 것이다.

‘역사는 반복 된다’는 말은 만고의



지 용 우

· 본보 논설위원
·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실장

진리다. 앞으로 제 2의 6·25는 절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그 운반수단인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무시

못할 군사정권이다. 게다가 2012년은 저들이 말하는 이른바 ‘강성대국’이 완성되는 해다. 그해에 김정일은 70세가 된다. 김정일은 이미 중풍에 걸렸던 병력이 있는데다 신부전증과 당뇨까지 앓고 있으니 그 안이라도 갑자기 죽는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그만큼 앞당겨질 수도 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 약점은 국가 중요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국론통일이 잘 안되고 늘 4분5열의 지리멸렬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권의 끝없는 당리당락적 싸움과 적대적대결은 국가발전의 발목

을 잡을 뿐 아니라 안보환경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자살폭탄 같은 것이다. 다른 건 그만두고 세종시 문제 하나만 놓고 보자. 지금까지도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한채 여 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여당 안에서도 ‘원안고수파’와 ‘수정안강행파’로 갈려서 연일 사생결단의 투쟁모습을 보이는 난장판 정치행태로 인해 국민의 정치불신은 옛말이고 이제는 정치혐오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국민은 ‘친이’ ‘친박’ 소리만 들어도 신물이 날 지경이다.

누군가 ‘친이’ ‘친박’ 간의 싸움을 ‘홀방지쟁’(鵲蚌之爭)이라는 사자성어로 비유했다. 도요새와 조개가 바닷가에서 물고 물리는 싸움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에 지나가던 어부가 두 마리를 다 잡아다가 국을 끓여먹었다는 고사다.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도대체 국민은 당산들에게 어떤 존재냐고. 세종시 문제 하나만으로 허구한 날 싸움 힘이 있거든 여야가 한 번 쯤 정파를 떠나 언젠가 밀어닥칠지도 모를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해 국가안보 하나만이라도 튼튼히 다져놓을 방책을 마련하는 일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생각은 없는 건지 진정으로 묻고 싶다. [국문]

북한人權 ‘남의 일’ 보듯 해선 안된다

우리 공동체의 삶과 국가 미래 비전 제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박세일교수는 북한문제의 본질은 우리 민족의 일부가 잘못된 정치-경제시스템속에서, 그리고 가난과 폭압의 전근대적 사회,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문제로 진단했다. 한마디로 북한동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해 북한을 정상국가, 근대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박교수의 견해를 소개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북한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가운데 그의 진단과 정책목표가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의 헌법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북한주민 고통을 해소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폭압정치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경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주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폭압정치개선은 김정일정권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는 문제라서 북한이 죽기살기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생활향상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문제다. 물론 인권개선요구도 북한이 찬성할 리는 없겠지만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가치로 인정된지 오래고 또 북한도 표면적으로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는 당장 북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한 방편일뿐더러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그런데도 최근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외통위에서 보여준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지난 10여년간 남북관계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있어야 할 교훈을 망각한 행동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4년6개월동안 국회에서 잠자던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외통위에서 통과시키려 하자 격렬히 반대하며 퇴장했다. 반대이유는 이 법안이 북한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없으뿐더러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른바 공연히 풀을 건드려 뱀을 놀라게 할 필요가 없다는 타초경사(打草驚蛇) 논리다.

이러한 주장은 실패한 김대중식 주장이다. 김대중정권은 햇볕정책을 쓰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고 남북의 화해상생이 달성되며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권력을 자극하기보다 선의를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요구하는



도 준 호

· 본회 이사
·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대로 식량과 비료를 무조건 지원하고, 턱없이 비싼 입산료를 지불하는 금강산관광을 시작하며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불참했다. 이로인해 ‘퍼주기’ 논란까지 일어났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남한에서 흘러간 돈이 핵개발에 전용됐으며 북한주민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 졌으며 수령독재체제는 선군정치라는 이름으로 강화됐다. 남북관계도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

김대중정권의 대북정책이 북한주민들의 고통해소보다 김정일정권 비위만 맞추려다보니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

황장엽씨는 어느자리에서 자신이 망명할 때 북한체제가 5년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었는데 햇볕정책으로 김정일정권만 연장됐다고 솔직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흘러간 노래를 되풀이 하는 것은 아직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지원을 하면 북한 주민인권이 개선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며 수령

독재체제가 부드러워 질 것이란 헛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친북좌익세력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겠다는 정치적 목적때문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닌 미국 의회가 지난 2004년에 마련하고 일본도 2006년에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번의 우리 인권법안은 미국등의 법안에 비해 훨씬 약하다. 탈북주민 인권대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북한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북한주민에 정보전달 유통’ 내용도 빠져 있다. 북한인권실태조사, 북한 주민에대한 인도적 지원, 국내 북한인권단체지원, 인권대사임명등의 내용만 들어 있다.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며 김정일에게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편지를 휴대하고 자진입북했던 미국시민 로버트 박씨가 43일만에 북한에서 풀려나오면서 “북한에 인권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었다. 북한은 인권이 가장 보장된 나라”라고 한 말을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일까?

미국 인권운동가 수잔 솔티여사가 “훗날 역사는 북한주민들이 고통받을 때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 지 물을 것”이란 말을 민주당은 경청해야 한다. [국문]

세종시 갈등 解法 百家爭鳴식 보도

한나라당내 주류, 비주류의 대결로 원점에서 맴돌던 세종시수정안이 2월22일 처음으로 의원총회에서 공식논의, 험난한 여정의 출발을 알렸다. 세종시 문제가 제기된지 6개월, 정부수정안이 나온지 40일 만이다. 한나라당 비주류의 수장 박근혜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소속의원 169명중 146명이 참석, 창당 10여년 이래 가장 큰 관심을 끈 의총이 되었다 한다. 친이(親李) 친박(親朴)의 '수정'대 '원안고수'의 관박이 주장 외에도 친박계에서 일탈한 김무성위원의 절충안 (대법원등 사법기관이전) 등 제3의 해법들도 붓물을 이뤘다고 한다. 정몽준대표는 "(중대한 문제를) 끝낼수 있을때까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면 3월에도 연다는 것이다. 일부신문은 "희망의 싹이 보인다"고도 했다.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고수'의 대결은 이제는 세종시를 어떻게 개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는 본원적문제의 타개보다는 '수정'이나 '고수'나 양자택일의 정치적 과외 게임(정치적 대결)양상으로 비약, 위기정국을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의 친이·친박 등 양대세력은 공멸의 분당(分黨)사태가 오기전에 상생의 위기출구(危機出口)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의총이 호기다.

국민들은 이제 세종시정국에 피로하다. 짜증이 난다.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조속히 매듭져야 한다. 주류측은 3월중 의원총회 당론수정, 4월 세종시수정안 국회처리, 6월 지방자치제선거, 7월 국회재·보궐선거, 전당대회 등의 바쁜 정치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100여석의 의석으로는 친박이 야당연합과 손잡으면 정족수미달로 상임위(국토해양위)-국회본회의등 통상적인 입법과정을 통과할 수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 이것이 오히려 비주류와의 협상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신문 특히 보수 신문들은 한나라당의 세종시난국타개 노력에 진지해야 한다. '강도론'과 같은 낯뜨거운 논쟁을 다시는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 직업병인 선세이셔널리즘은 자제해야 한다. 신문은 百家爭鳴(백가쟁명)이다, 신문마다 각기 다른 자기 소리를 낸다. 언론이 분열과 대립을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 할 수 있다. 신문도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념차이도 있어 추악한 대리전 양상도 나타날 수 있다.

모든 신문들이 이대통령과 박전대표 등 정상간의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는데는 한 목소리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치의 지평을 크게 흔든 것은 3대 보수신문의 하나인 조선일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수정안의 철화를 극명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월28일자 통사설 "대한민국은 '세종市'라는 과거로부터 脫出해야 한다"에서 "한나라당의 당론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박근혜 전대표가 반대하고 있고 야당도 반대,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 할 수 없다"며 "이

타당한가. 전자는 민주정치의 거부고 후자는 보수 유권자에 대한 이념적 배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이념적 배신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박 전대표의 이 엄청난 '신뢰의 게임'도 그의



이재승

· 본보 편집위원
· 세종연구소 이사

이고 일방적이다. 희망적인 유추로 포장돼 있으며 목표 지향적이다.

이것으로 친박반이(親朴反李)의 극명한 편향성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균형을 상실하니 객관성을 잃고 도그마에 빠지기 쉽다. 설득력도 약해진다. 아예 정치윤리는 도외시돼 있다. 박 전대표의 비토권 정략이나 이념적으로 성향이 다른 야당연합과의 연립행위는 우리나라 정치윤리상

타당한가. 전자는 민주정치의 거부고 후자는 보수 유권자에 대한 이념적 배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이념적 배신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박 전대표의 이 엄청난 '신뢰의 게임'도 그의

보수지들 박전대표 비토권 비판 좌파지들은 원안고수 전폭 지원

명박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대표와 야당 지도자를 만나 ...충청도민이 원하는 것을 충청도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의 간판 칼럼니스트인 김대중 주필도 그의 칼럼 "세종시(市)와 실용(實用)의 정치"에서 "박전대표측은 '경상+충청'으로 대권이 보이는 상황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을 것이다"며 "...백년'의 대계(大計)보다는 '2012년'의 정권재창출에 양보하는 것이 순서다"고 했다.

한 마디로 멀쩡하게 살아있는 권력 대신 싹이 보이나 아직은 개화를 담보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의 권력을 선택했다. 대담한 결단이다. 그러나 무리한 선택은 아닌가. 결단에 걸맞는 객관적 가치판단의 논거가 요구되는데 주류의 의식 한계, 국정정의 정상화 회귀, 차기 보수대권후보 발탁육성 등 제시된 논거만으로는 미흡하다. 다분히 주관적

이중성위에서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또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통찰력 부족이다. 임기가 절반이상이나 남은 이명박정권이 중대한 과오도 없는데 이제 무조건 양보하면 권력의 분점 등으로 조기에 레임덕(권력의 누수)이 될 것은 불을 보듯 하다. 이에 따른 정치·국정혼란과 그 폐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가. 또한 "세종시 과거의 문제를 털고 오늘과 내일의 문제를 풀어가자"고 했는데 무슨 힘으로 풀어가나. 자가당착이 아닌가.

지구상 어떤 살아 있는 권력이 자살 행위를 선택하겠는가.

다음으로는 박 전대표 자신의 역량이다. 중국 고전은 시류(時流), 지세(地勢), 인화(人和)를 대권의 3대요소라 했다. 그가 차기대통령이 돼야 할 만한 그릇인가. 그럴만한 자질, 품성, 역량이 있는가. 대중적인 인기나 영남·북과 충청등의 견실한 지역기반으로 봐서 지세는 잡고 있다 하겠으나 시류와 인화

에서는 의문이다. 새시대에는 새인물을 찾아봐야 한다. 그를 '권력재창출'로 표현했던 김대중주필도 후속 자신의 칼럼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2월 22일자)에서 "사고 유연성, 너그러움은 대통령의 필수과목, 원로종진 참모없이 지금 면면으로 대권 얻을 수 있겠나"라고 고언을 했다.

조선의 친박성향에 비해 중앙과 동아 등 다른 경쟁보수지들과 한국, 서울, 문화등 기타 중도및 군소보수지들은 주류측이 의도하고 있는 의총토론, 당론 결정, 국회처리라는 통상적인 정치과정을 거쳐 결론 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차이는 있다. 당론수정에 대해 논의자체와 수정되어도 승복 않겠다는 승복거부를 사전에 천명한 박전대표의 수정안 비토(거부권)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본질의 위배"로 다같이 비판했다. 동아, 중앙은 사실에서 "한나라당 친이·친박 順례의 정치해보라"(2월 19일), "역사에 당당하면 토론·표결은 두렵지 않다"(2월 18일)고 주장했다. 동아는 표 대결보다는 대화에 의한 타결에 무게를 실었고 중앙은 수정당론을 권장당론으로 하여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사실 "국격을 갖춘 세종시 수정논의를 거듭 촉구한다"(2월 12일)에서 "박전대표가 이제 세종시원안고수론을 접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사 사장을 역임한 장명수 고문도 그의 칼럼 "박근혜와 세종시"(1월 29일)에서 "...국익이 걸려있는 공적인 약속에서 반대의견이 있다면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내분에 권토중래의 싹을 찾는 한겨레, 경향, 내일신문 등 진보·좌파지들은 '원안고수'의 박근혜 전한나라당대표를 전폭 성원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정국은 오늘의 권력을 흔들고 내일의 권력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정치거품이 됐다. 정치거품도 경제거품처럼 걷어내야 한다. 정국태풍의 핵인 공주시를 지역구로 해왔던 중도계의 정진석의원은 "친이계와 친박계중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선 안된다"며 "서로 최소한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이 옳다, 양대표 담판이든 의원총회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존의 '원인 출구'를 찾아야 한다. [4]

'PD저널리즘' 개선여부 관심

김인규 KBS사장, 記者와 직군 통합 밝혀

방송계가 소위 'PD저널리즘'의 편파성 등 논란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인규 KBS사장(본회 회우)이 "PD와 기자의 경계를 허물고 협업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의 실현여부가 조짐으로 떠올랐다.

김 사장은 지난 2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의 방송,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광화문문화포럼 강연에서 "PD들이 만든 보도 프로그램

은 스토리텔링에 치우치다 보니 자칫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자과 PD의 장점을 합쳐야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만들수 있다"고 말했다.

김사장은 "기자 저널리즘은 객관성을 중시하는 대신 산술적 중립성에 빠질 함정이 있으며, PD 저널리즘은 창의성을 중시하다가 편파성을 지닐 소지가 있다"며 "올해 KBS 신입사원을 뽑을 때 기자와 PD를 한 직군으로 통합해 선

발하고, 보도본부와 TV제작본부 등으로 이원화된 조직구조도 유연화하는 등 기자와 PD의 칸막이를 허물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과 PD가 분리돼 이원적 제작시스템이 굳어진 한국의 방송 저널리즘은 외발자전거와 같다"면서 "두 직군을 통합해 장점만 살리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PD 저널리즘'이 생겨난 것은 1970~80년대로 당시에는 정부가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프레스카드를 발급해 기자 출입을 제한했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추적60분'과 'PD수첩'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취재 인력이 부족하자 기자 대신 PD를 충원했다고 밝

혔다.

김 사장은 현재 일본 NHK의 메인 뉴스가 6, 7개 꼭지로 이뤄지는데 비해 국내 뉴스는 25개 꼭지를 전하는 '백화점'식 보도에 그치고 있다며 올해 꼭지수를 줄이고 심층 뉴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KBS 2TV의 문제를 거론하며 2TV의 공영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2TV가 주말만 되면 연예인이 나와서 문제다. '다큐3일'과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황금 시간대에 집어넣었다. 광고 담당자가 300억원 정도 손해 본다고 말했는데 내가 밀어붙

7면으로 이어집니다.

KBS-MBC ‘웅졸’ SBS ‘준비부족’

‘범’이 KBS뉴스9와 MBC뉴스데스크를 재편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때 필자는 무슨얘기인가 했다. 듣기에는 이상하지만 사실이었다면 독자들께서는 믿으실 수가 있을까. 무슨 얘기가 했더니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500미터 경주에서 모태범(‘범’)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KBS와 MBC가 밤 9시 뉴스의 톱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끝에 나온 우스갯소리였다. 아닌가 아니라 양 공영방송사는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올림픽관련 뉴스를 깔아뭉개온게 사실이다. 올림픽개막식 관련 뉴스는 물론이요, 지난 2월 14일 쇼트트랙1500 미터 경주에서 이정수선수가 우리선수로는 첫번째로 금메달을 땀을 때도 양사는 단신처리로 그쳤다. KBS는 스포츠뉴스에서 단신으로 처리했고, MBC는 뉴스데스크 5번째 순서로 앵커 단신처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부터 비난을 받았다. 중계권협상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뉴스밸류가 큰 소식을 깔아뭉개는 웅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영방송의 체통을 여지없이 꾸짖던 것이다. 더군다나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가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무슨 얼굴로 시청료 인상을 요구 할수 있는냐는 비판도 나왔다. 두 방송사는 ‘공영’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서도 중계권협상에 패배함으로써 “안되는 건 안되는 것”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셈이었다. 뒤늦게 두 공영방송사 뿐아니라 신문사들(이전에 방송 3사가 같은 경기를 중계방송할때는 국민소유인 전파를 낭비한다고 앞장서서 비난해오던 신문들)까지도 SBS와 방통위를 비난하고 나섰지만 이미 때늦은 변명이요 생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앞으로도 SBS가 양보하지 않고 방통위도 중재노력을 포기한다면 시청자들은 “올림픽 중계방송은 SBS”라는 SBS의 구호 앞에 선택의 여지없이 무력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양 공영방송들은 9시 뉴스를 통해서라도 충실하게 우리 선수들의 활약상을 보도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청자들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 들여야 했는데, 개막식소식부터 깔아뭉개다가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SBS는 어떨까. ‘독점중계’만 즐겼지 준비를 제대로 했느냐는 시청자들의 따가운 비판을 반박하고 나설 수 있는가. 영상화면은 조직위원회 주관방송사에서 보내오는 화면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중계캐스터나 해설자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중계에 임했는가. 필자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한 예를 들어보자. 모태범이 500미터 금메달에 이어 은메달을 딴 2월18일 아침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1000 미터 경기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일곱번째 선수들의 경기가 끝나고 여덟번째 경주가 시작되면서 일이 벌어졌다. 한 선수가 부정출발해 경주가 중단 됐는데도 다른 선수

는 계속 전력질주해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중계캐스터나 해설자도 당황하긴 마찬가지. 뒤늦게 질주하던 선수도 멈추고 경기가 중단되고 있는 사이(아마도 4~5분은 족히 흐른 것 같다) 캐스터와 해설자 두사람은 한참동안이나 우왕좌왕하는 진행석과 마찬가지로 ‘우왕좌왕’해 시청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장내가 어수선하다”는 얘기에서 “백인 선심의 흰 얼굴이 더 하얘진것 같다”는 멘트에서는 실소를 금할수가 없었다. 그동안에도 장내 아나운서는 실재 없이 영어와 불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청자들은 전혀 정보를 얻지 못

신 대 군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총주·대구 MBC사장

공영방송사들이 협상을 잘 이끌어 공동 중계를 하게 되고 시청자들은 각자 선호하는 캐스터와 해설자를 골라 다양성을 즐길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전파낭비는 일부신문들의 비난은 콘텐츠를

올림픽 보도 공영방송 책임 외면 ‘깔아뭉개기’와 ‘독점오만’ 맞서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참만에야 장내 아나운서의 설명을 의식했는지 중계캐스터 하는 말,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무엇이라고 설명 했는지 들을 수 없었다”는 설명에 이르러서는 황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왜 헤드폰을 계속 끼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잠시 벗고 장내 아나운서의 멘트를 들은뒤 상황을 설명해 주면 안된다는 얘기가.

중계 캐스터나 해설자가 영어나 불어에 모두 능통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모르면 아는 사람, 불어나 영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앉혀 두고 중계하면 되는 것 아닌가. 모르는걸 따지자는게 아니라 SBS의 ‘준비부족’을 지적하는 것이다. SBS의 준비부족은 그뒤 이상화선수가 금메달을 땀을때도 느껴졌다. 현지출발을 앞두고 이상화선수가 집에 있는 달력의 2월16일 난에 ‘인생역전’이라고 미리 써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런 일인가 하는 것은 다음날 신문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아아’하는 감탄인지 뭔지 모를 소리, ‘관찮습니다’ 하는소리 (뭐가 그렇게도 관찮은지), ‘좋습니다’ 는등 별 쓸모없는 감탄사를 듣기위해 시청자들이 TV앞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시청자가 기대하는 것은 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에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화나 비하인드 스토리, 훈련중에 있었던 어려움, 가족에 얹힌 얘기 등이나, 메달은 못땀지

어떻게 잘 포장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하게 내용을 꾸미는가 하는 방송사들의 경쟁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시청료를 내는 시청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중계방송을 골라서 볼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곧 공영방송의 임무요 책임이 아닌가. 여기서 개막식에서 있었던 자크 로게 IOC위원장의 개식사 한구절을 인용해 본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영광은 없다”는 이 한 구절이 바로 SBS 중계담당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오는 사이에도 국내 정치판은 세종시 문제와 민노당 불법당원과 당비문제로 시끄러웠다. 민노당이 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통장으로 당비를 납부 받았는지, 이 통장에서 민노당 소속의원들에게 왜 일정금액의 돈이 송금됐는지, 전공노와 전교조 소속 공무원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아닌지, 민노당 주장대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다른통장을 운영해온 것이 행정착오가 사실이라면 행정착오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이들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당내에서 처벌했는지, MB정부의 정치탄압이라는 강기갑대표의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한 얘기인지 등등 궁금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경찰이나 검찰수사의 몫이기에 제쳐두고, 본란은 공영방송의 보도내용과 자세를 짚어 보기로 한다. 그동안 소위 ‘차떼기 정당’에 대비돼 가장

도덕적인 정당으로 여겨져 왔던 (이에 따라 일부 젊은이들은 민노당을 우상처럼 여겨 온것 아닌가) 민노당의 이런 의문스런 행태에 대해 방송들로 부터 어떠한 시원한 정보도 들을수 없었다는 느낌이다. 2월10일 밤 9시 뉴스에서 KBS는 두 쪽지, MBC는 한쪽지씩 각각 수사 속보를 전했다. MBC가 경찰수사 속보와 민노당 반응을 엮어 간단히 보도한 반면 KBS는 수사속보에 이어 “민노당 당혹, 도덕성 타격 우려”란 제목의 해설성 기사를 내보냈다. KBS는 이 보도에서 “민노당은 당비를 선관위 미등록계좌로 받은 것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자 당혹해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노동자 정당으로써 기존 정치권과 차별을 선언하고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왜 그동안 미등록 계좌를 방치해 왔는지에 대한 해명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KBS의 이와같은 보도와 달리 MBC는 경찰수사 속보와 민노당 반응을 한쪽으로 간단히 보도하는데 그쳤다. 열흘이 지난뒤인 2월20일 MBC도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통해 “흔들리는 민노당, 대규모집회”란 타이틀로 관련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이 리포트는 민노당이 당원들의 신분소출을 막기위해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가진 폐쇄함으로써, 당비송금이 막혀 선거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든지, 전교조 가입에 대한 경찰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민노당이 투표 사이트를 잠정폐쇄해 지방선거 공천 문제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든지 하는 민노당의 ‘어려워진 처지’ 위주의 보도에 그쳤다. 또 민노당의원 인터뷰를 통해 소위 ‘MB정부의 야당탄압’을 경찰수사에 연결시키고 있었는데 이는 이미 여러차례 되풀이 되어온 민노당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었다. 누가 들어도 민노당의 어려운 입장을 흡사 ‘대변’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었다.

양사의 최근 민노당 불법 당비사건 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2002년 대선때 한나라당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문제를 ‘차떼기’라며 집중적으로 몰고 늘어지던 끈질김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우리의 시청자들은 이제 어느 방송이 어느 정당에 편향적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방송 종사자들만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 오고 있다. 우리의 공영방송이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도 곤란하지만 어느 정당쪽에 치우쳐서도 안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공영방송이 공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주]

6면에서 이어집니다.

였다”고 말했다. 이어 “KBS가 광고 수입을 벗어나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

다.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SBS가 동계 올림픽을 단독 중계한 사태에 대해서는 “일본만 해

도 국제스포츠 중계권을 얻으면 공영방송인 NHK에 절반을 주고 나머지 절반을 민영방송이 나눠 갖는 것이 불문율”

이라면서 “한국은 공영방송이 많아 그런 지원이 안 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주]

독립의 숨은 공로자 홉킨스 재조명 시급

한일병합 1백주년(1910~2010)을 지나고 있다. 몇 주년이라는 용어를 흔히 좋은 일에만 붙여왔기 때문에 ‘한일병합 1백주년’이라는 말이 좀 어색해 보인다. 그러나 한일병합 1백주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것은 결코 어색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일병합에 대한 역사를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과오가 있다.

첫째는 한일병합이 친일파에 의해 이뤄졌다는 단순논리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는 한일병합을 푸는 열쇠를 제공한 최남선과 홉킨스를 알지 못하거나 잘못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1854년 개항한 이래 매년 거의 100%에 가까운 국력증진을 하면서 1895에는 청일전쟁을 이기고 1905년에는 러일전쟁에 승리했으며 1931년에는 만주를 점령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 하루아침에 중국인구의 3분의 1, 영토의 4분의 1, 그리고 산업시설의 95%가 있는 동부지역을 점령했다. 일본은 1941년 8월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항공모함 10척 잠수함 86척 항공기 1천5백대 등 미국을 앞선 무력을 갖고 있었다.

조선 말 이후 침체에 빠져 있는 조선으로서는 일본의 상승하는 침략무력과 거의 적수가 되지 않았다. 일본은 이런 침략무력을 배경으로 국제관계를 철지한 친일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1910년

조선을 강점했다. 일본은 조선반도가 이제 영원히 일본 땅이 되고 조선민족은 영원히 일본민족의 종이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한일병합 조약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다.

이완용 송병준 같은 매국노가 우리 역사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한일병합의 책임은 이완



정 일 화

- 본보 편집위원
- 정치학박사
- 한미안보 연구회이사

많은 지식인들은 이미 일본 편에서 있었고 당시 가장 큰 종교단체인 조선유교단체나 가톨릭단체는 감히 일본에 맞서서는 안 된다면서 3·1 운동 가담을 거부했다. 불교단체도 한용운스님을 비롯한 단 2명의 스님이 독립선언서에 가담할 뿐이었다. 독립선언을 독립청원운동으로

지만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는 막강한 역할을 했다. 이것이 기점이 되어 상해임시정부도 서고 국내외에서 알게 모르게 대한독립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독립선언서를 쓴 최남선은 지금 친일파로 매도되어 역사에 이름이 희미해지고 있다. 인류역사상 그 나라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을 민족반역자로 역사에 파묻어버리는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더욱 놀랄 만한 일은 대한민국이 자유독립국가가 된 것은 카이로선언에서 연합국이 독립을 결의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있으면서 그 카이로선언의 초안자 해리 홉킨스라는 인물은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고 이름을 알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홉킨스(Harry Lloyd Hopkins)는 루스벨트정부의 연방구호청장, 상무장관을 거쳐 당시 대통령특별보좌관으로 카이로군사회담을 주선했으며 정치적 이유로 회담의 성명서 초안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자 스스로 초안을 만들어 각국 원수의 동의를 얻은 후 카이로선언으로 발표된 것이었다. 그는 초안에서 전쟁이 끝나면 약소국이 스스로의 독립정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미국의 전쟁철학에 따라 그 대표적인 예로 코리아라는 이름을 성명서에 넣어 발표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대한민국은 최남선과 해리 홉킨스에 대한 건국훈장을 수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범국민적 훈장청원운동에 많은 애국지사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www.kci.go.kr]

카이로 선언 초안에 ‘코리아’ 明記해 독립선언서 쓴 최남선 함께 기려야

용 송병준 같은 친일파보다는 일본제국주의에 근본적인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근본적인 과오를 연구하지 못하고 친일파만 공격하다가 세월을 보내면 우리는 역사의 진정한 교훈을 얻어내지 못하고 과거의 과오를 다시 덮어쓸 수 있을 것이다.

1919년 3월 일본의 무력이 조선반도를 적나라하게 뒤덮고 있을 때 대한독립을 외친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행세하는 왕실사람들, 고관대작들,

바꾼다면 가담하겠다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으나 이들은 끝내 참여를 거부했다.

조선은 이미 죽었고 희망이 없는 나라였다. 그런 가운데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쓰고 33인이 서명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은 죽음을 안고 싸우는 용기를 보인 것이었고 그 결과 낙담한 민족에게 민족혼을 일깨우는 혁명을 일으킨 것이었다. 3·1운동은 비록 국가를 다시 찾는데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했

칠천량패전의 교훈

정유재란이 일어나던 선조 30년(1597) 2월 26일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은 ‘조정을 속이고 적을 치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죄목을 뒤집어쓰고 파면당해 선조(宣祖)가 보낸 선전관에게 체포됐다. 후임자는 원균(元均). 이순신이 의금부 옥에서 구사일생으로 풀려나 백의종군을 시작한 것은 그해 4월 1일이였다.

그 동안 도원수 권율(權慄)의 출전명령을 받은 원균은 먼저 육군 30만 명으로 안골포와 가덕도의 왜군을 무찌른 뒤 수륙연합작전을 펴 부산을 쳐야 한 다면서 쫓쳐럼 함대를 출동시키지 않았다. 당시 조선이 30만 대군을 동원할 수 있었다면 임진왜란은 훨씬 전에 조선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다. 그때 조선은 명나라 구원병 1만 명의 군량과 마초를 조달하는 것만 가지고도 찢찢매고 있었는데 무슨 재주로 30만 대군을 동원한단 말인가.

6월 18일에 원균은 여러 차례 독촉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함대를 끌고나갔다가 안골포와 가덕도에서 패하고 말았다. 패보를 받은 권율은 원균을 호출하여 곤장을 치며 재출전을 명했다. 한산도로 돌아온 원균은 전함 200여 척을 이끌고 출동했다. 7월 4일 한산도를 출발한 함대가 절영도에 이르니 1천여 척의 적의 대선단이 숨어 있었다. 왜군은 우리 함대를 보자 후퇴를 거듭했다. 유인작전이었다.

적이 후퇴하자 원균은 승기를 잡았다고 오관, 공격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그때부터 풍랑이 거칠어졌다. 우리 수군은 한산도에서부터 4일간이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배를 저어왔는지라 싸움이 될 턱이 없었다. 원균은 지친 함대를 수습하여 가덕도로 후퇴했지만 벌써 왜군이 배후를 지키고 있다가 공격을 퍼부었다.

그동안 왜 수군에게 공포의 대상이던 주력함인 판옥선 20척과 군사 400여 명을 잃고 원균은 다시 칠천량으로 후퇴했다. 왜군은 7월 14일 거제도까지 쫓아와 이튿날 밤 칠천량에서 총공격을 퍼부었다. 이 싸움에서 역전의 용장 전라우수사 이여기(李億祺) 등이 전사했다.

사기가 떨어진 데다 경계를 허술히 하다가 기습당한 아군은 일방적으로 당

溫故知新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주장인 원균이 끝까지 지휘하지 않고 전선을 이탈해 도주했다. 원균은 순천부사 우치적(禹致積) 등과 함께 배를 버리고 물으로 올랐는데, 그 뒤의 행방은 묘연하다. 그가 전사한 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 막강하던 조선 수군은 궤멸했다. 경상우수사 배설(裴榑)만이

휘하 전선 12척을 이끌고 탈출에 성공했다. 나중에 이순신이 이 12척을 발판 삼아 수군을 재건, 명량해전에서 기적 같은 대첩을 거둔다.

칠천량해전 참패로 우리 수군은 180여 척의 전함과 수천 명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니 전멸과 다름없었다. 칠천량패전과 조선 수군의 궤멸은 어찌 보면 자업자득인 셈이었다. 임진왜란 내내 장수들은 왜적과 싸우고, 국왕은 장수들이 조금만 인기가 있어도

트집 잡아 죽이려고 들었다. 김덕령(金德齡)을 그래서 죽였고, 곽재우(郭再祐)도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 이순신도 그렇게 죽이려 했다. 그래서 선조를 가리켜 업기적 국왕이라고 하는 것이다.

칠천량패전은 임금 자격이 없는 선조와 병법에 어두운 도원수 권율이 왜적의 간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수군의 출전만 명령했기에 빚어졌다. 여기에 무능하기 그지없는 졸장원균이 조연 노릇을 했기에 자초한 재앙이었다.

칠천량패전을 두고 경계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세가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장수가 판단력을 잃지 않고 제대로 지휘를 했다면, 또 병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경계했다면 그토록 비참한 패전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병법의 기본에 속하는 상식이다. 그런 까닭에 전투에 진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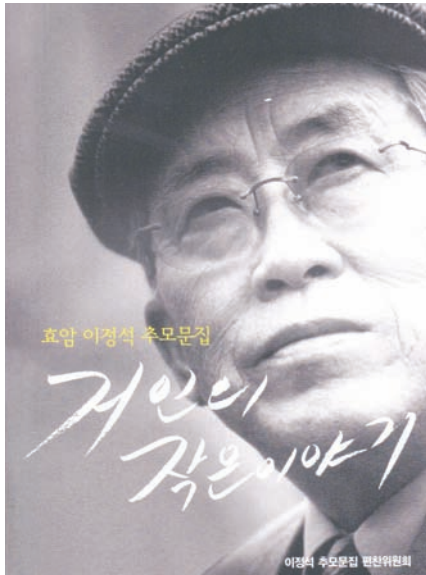
지난해에 우리 군의 경계에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전방 철책선이 뚫린 것을 북한 방송을 듣고 알았고, 북한 선박이 해안까지 접근한 것을 민간인의 신고로 발견(?)하기도 했다. 호전적인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칠천량패전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경계에 실패하는 장수가 나온다면 그 옛날 원균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www.kci.go.kr]

효암 이정석 선생 추모문집 ‘거인의 작은 이야기’ 출간 출판기념회 선후배 200여명 참석

이정석 선생을 아끼고 사랑했던 선후배들이 모여 고인의 2주기에 맞추어 ‘효암 이정석 추모문집 -거인의 작은 이야기’를 펴냈다. 총 303쪽의 추모문집중에 절반은 효암(曉巖)의 자전적 회고록과 신문·잡지·인터넷에 기고한 유고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정석 선생과 평소 교분이 두터웠던 지인들이 기고한 추모문으로 구성됐다.

이 회고록을 통해 초창기 우리나라 방송 저널리즘을 개척하고 공영방송 보도의 기틀을 다진 효암의 발자취를 볼 수 있으며, 서울올림픽주관방송 본부장으로서 서울올림픽 방송을 성공으로 이끌어간 그의 저력을 신나게 감상할 수 있다.

특히 1954년 조선일보 기자-동아방송 보도부장-KBS국영공영방송 보도국장-해외지국장-서울올림픽방송본부장-KBS 기획조정실장 등의 현업 경력, 언론단체에서의 활동, 칼럼니스트로서 생



을 마감할 때까지 효암 이정석 선생의 언론외길 반세기는 참 언론인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의 족적은 2008년 방송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어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거인의 작은 이야기’ 출판기념회. 좌로부터 최창봉, 강인섭, 효암 장남, 미망인, 둘째 아들과 진철수 회우, 김인규 KBS 사장.

2월 18일 이 추모문집 출판기념회에는 200여명의 언론계 방송계 인사들이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회의장을 그득 메우고 이정석 선생을 기렸다.

최창봉 전 MBC문화방송사장, 진철수 원로언론계 선배, 김인규 KBS사장 등이 문집 발간 축하를 해주었다. 그리고 흥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 이정재 국회의원, 김종하 전 국회부의장, 송태호 전문공부장관, 신우식 전 서울신문 사장, 김수웅 KBS 사우회 회장, 이형균 본회논설위원장 등 효암의 선후배 동료들이 자리를 함

께 했다. 이 책발간에는 본회 김성배 김은구 노상국 조천용 한중광 회우가 출판위원으로 참여했다.

(해럴드미디어 발행·국판·303쪽, 값 20,000원)

글: 김성배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알림

이정석 추모문집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효암 이정석 추모문집-거인의 작은 이야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회우는 언론인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30명 선착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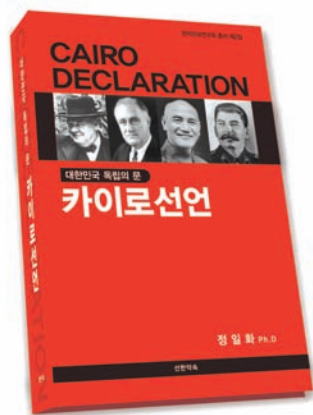
회우들이 펴낸 新刊

정일화 회우 ‘카이로 선언’

정일화회원이 3월1일자로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선언’(선한약속출판)을 발간했다. 저자는 한국언론재단과 한미안보연구회의 저술지원을 받아 그동안 미국무성 자료를 중심으로 카이로선언의 성립과정과 내용을 연구분석해 책으로 엮었다.

카이로선언은 우선 미국 루스벨트 정부의 연방구호청장과 상무장관을 지내고 당시 대통령특별보좌관으로 있던 해리 로이드 홉킨스(Harry Lloyd Hopkins)가 초안해서 5번에 걸친 길고도 복잡한 수정과정을 거쳐 발표되었는데 그 수정과정을 국무성 자료와 기타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분석했다. 원래 비밀군사회담으로 열린 카이로회담은 공동성명기초위원회를 통해 성명서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회담참가국간의 심한 의견충돌로 기초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홉킨스가 성명서를 초안한 후 각국의 협의 수정절차를 거쳐 발표되었다. 카이로 회담은 유럽전쟁의 마무리를 위한 주제를 다뤘으나 코뮌니케내용은 유럽전선부문을 뒤의 테헤란회담으로 넘기고 대신 아시아문제를 담았으며 전쟁이 끝나면 세계의 1백개식민지를 대표하여 한국을 자유독립시킬 것이라는 구절을 성명서에 넣었다. 한국은 일본이 멸망한 직후(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독립할 것이라고 했다가 적절한 순간(proper moment)으로 바뀌었고 결국 적절한 과정(induecourse)을 거쳐 독립한다고 최종 결정되었다.

한국을 자유 독립케 한다는 카이로 선언은 미국무성의 전후처리방침의



명확한 지침이 되었으며 이 지침에 따라 미국은 포츠담회담에서도 한국 독립의 확인을 주장하여 확인되었고 알타회담에서도 한국이 독립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이 원칙은 뒤에 유엔으로 승계되어 남북총선거를 통한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을 결정하였고 이어 선거가 가능한 38선 이남에서 먼저 총선을 실시하여 대한민국이 탄생되게 했다.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 한국독립을 위한 적절한 과정을 두고 회담진행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미국은 한국의 독립자체는 확실히 주장했던 것이다.

저자는 홉킨스가 어떻게 카이로선언에 한국의 독립조항을 포함시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세밀한 과정은 자료 부족으로 밝히지 못했지만 카이로선언에 약소국의 독립과 한국의 독립보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연관하여 조명했다.

Covenant Press(선한약속)출판
값2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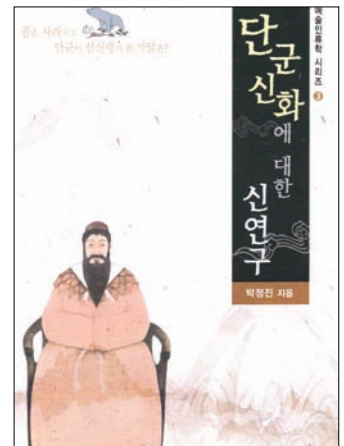
박정진 회우 ‘단군신화 ...’

박정진 회우(시인 겸 문화인류학자)가 단군신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담은 ‘단군신화에 대한 신연구--꿈은 사라지고 단군이 산신령이 된 까닭은’(한국학술정보)을 펴냈다. 그의 신화학 고대사 연구의 결정판인 이 책은 단군을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의 전환기의 인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은 “단군은 단모(檀母)의 자손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단군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 국문학, 민속학, 인류학 등 여러 분과학문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의 역사적 실체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답을 학계는 얻지 못했다. 이번 책은 적어도 그러한 미궁 속의 단군의 실체에 대해 적어도 새로운 서광을 비추는 결실로 보인다.

단군신화에 대해서 저자 특유의 아이디어와 인류학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이 책은 ‘단군’보다도 소위 ‘삼신할머니’가 더 민간에 친숙한 이유를 바로 모계적 전통의 연속에서 찾고 있다. 이 책은 단군이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부족국가에서 국가사회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역사, 청동기 시대의 역사라는 데에 합의를 하고 있다.

박정진씨는 한 민족의 원류인 동이족과 중국 한족과의 고대사의 관계는 북방유목문화를 주축으로 하는 동이족이 먼저 융성하였다가 농업생산성의 강화 이후 한족으로 문화적 중심이 옮겨가면서 벌어진 역사적 헤게모니 다툼으로 보고 있다.

고대 중국의 삼황오제가 한족의 조상이라기보다는 동이족과 한족의 공통 조상인데 가부장사회에 먼저 적응한



중국이 후대에 지배세력이 됨으로써 모두 중국의 조상으로 편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먼저 동아시아를 지배한 세력인 동이족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요임금과 대립이 되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단군을 내세우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요체이다.

최남선의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의 새로운 전개로 보이는 이 책은 전대의 문화가 어떻게 후대의 새로운 중심 문화에 의해 통합되고, 또 신화조작되는 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담긴 ‘삼국유사’와 새로 발굴된 ‘묘향산지(妙香山誌)’ ‘제대조기(第代朝記)’ 등 단군관련 저술과 논문을 방대하게 섭렵하면서 내린 저자의 결론은 “단군의 모계적 성격이 신화에도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한민족이 모계적 성향, 여성-평화중심주의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단군신화에서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도 現役... 언제 어디서나 ‘뉴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20>

회우

인터

그는 언제 어디서나 언론인이다.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한 언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진철수 회우. 1929년 2월 4일 서울 가회동 태생. 어느 덧 팔순을 넘겼다. 그러나 외모나 걸음걸이, 목소리 어느 모로 보아도 젊은 혈기가 넘쳐난다. 1952년 코리아 타임스 입사이래 1975년 미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지금까지 59년째 언론과 인연을 맺고 있으니 그의 말처럼 골수 언론인이다. 워싱턴DC 근처에 살면서 USA Briefing사장 겸 주필로 미디어 웹사이트(www.usabriefing.net)를 제작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7일 서울에 왔다가 한달간 머물고 3월 6일 출국했다. 서울 체류 중 서울 프레스 센터 대한언론인회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보았다.

-아주 건강하고 연세에 비해 젊어 보이시는데 비결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젊어서부터 즐겨온 테니스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번에 서울에 와서도 장흥훈, 민병문 씨등과 만나 테니스를 쳤습니다.”

-유 에스 에이 브리핑은 어떤 인터넷 매체입니까.

“전재계약이 돼 있는 뉴욕 타임스 기사 등 미국의 최신 뉴스와 국제정세를 영한 대역으로 서비스 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동영상 뉴스와 원어민의 영문기사 낭독과 적절한 주석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에 도움을 주자는 목적과 함께 미국 고급지들의 분석, 논설 등을 한국에 널리 보급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 동포들 가운데서도 뉴욕타임스나 뉴스 위크 등을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어를 우리 말로 번역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해설해 주니까 자습을 하면서도 얼마나 고마워 하는 줄 몰라요.”

-서울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새로운 인터넷 매체를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차 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본격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잇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인터넷 매체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두 달 안에 신장개업할 예정입니다.”

-서울 출장 목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네, 많은 지인들을 만나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초기 투자 자금 확보가 관건입니다. 잘 되리라 봅니다.”

그의 부친은 소과 방정환선생과 함께 어린이 문화 운동단체 색동회 멤버의 한 사람이었던 고 진장섭 선생이다. 모친은 일본 유학을 하고 잡지 ‘창조’와 ‘개벽’지 기자로 일하다 동아일보 기자를 지낸 신여성이었다.

그는 서울대 문리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AP통신 서울지국 기자와 지국장을 지냈다. 그러다 영문학과 동기인 박권상 회우의 권유로 동아일보로 옮겨 미국 워



진철수 회우가 일시 귀국중 지난 2월 25일 대한언론인회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넘치는 活力... 워싱턴-서울 오가며 인터넷 관훈클럽 창립... “요즘 한국언론 팩트외면

싱턴 특파원과 편집국 취재담당 국장대우를 역임했다. 정경부장과 사회부장을 잠시 겸임하기도 했다.

다음은 ‘한국언론과 함께 한 50년 비사, 이야기 관훈클럽’(저자 정범준) 121쪽에 나오는 내용이다.

“진철수는 1965년 동아일보 주미특파원으로 떠났다가 1971년 초 귀국했다. 곧 선거 광풍이 불었는데 진철수는 여야 양쪽으로부터 수난을 당했다. 야당은 야당 유세에 모인 청중수가 그것 밖에 안 되느냐고 투정을 부렸고, 여당은 여당 유세의 청중 수를 부풀리지 않는다고 박해했다. 그 바람에 정보부에 끌려가 여러번 물리적 가해를 당했다. 진철수는 1974년 동아일보에서 퇴사한 뒤 이듬해 도미했다.”

-왜 동아일보를 그만 두셨나요.

“1972년과 73년 유신체제에서 언론 보

도와 관련, 정부 기관에 부당하게 연행 구금되고 문초를 당했습니다만, 회사는 자진 퇴사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동아일보 뉴욕판 편집국장, MBC TV순회 특파원, 시사저널 창간 에디터와 파리특파원, 문화일보 워싱턴특파원을 역임했다.

그의 언론 경력에서 53년의 역사를 가진 전 현직 언론인들의 친목단체인 관훈클럽의 창립 멤버로서 초대 총무를 맡았던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이야기 관훈클럽’은 창립멤버 부분 59쪽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9개월 남짓의 준비기간을 끝내고 젊은 기자들은 마침내 관훈클럽의 발족을 선언하고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 1957년 1월11일 관훈동 하숙집에서였다. 이것은 역사적 출발이었고 이 날은 훗날 클럽 창립일로 자리

매김된다. 참석자는 모두 열네 명으로 김보성, 김용구, 김인호, 박권상, 박중희, 이경성, 이규현, 이시호, 이정석, 정인양, 조세형, 진철수, 최병우, 홍성원이었다. 나흘 후인 15일에는 열세명이 또 모였다. 참석자는 김보성, 김용구, 김인호, 노회엽, 민병구, 박권상, 박중희, 이광표, 이시호, 임방현, 정인양, 진철수, 홍성원이었다. 이날 창립 멤버가 결정됐다. 발기인 총회에 참석했다가 15일 회의에는 불참한 이경성, 이규현, 이정석, 조세형, 최병우 다섯명과 이날 모인 열세명을 합쳐 열여덟 명을 창립멤버로 정한 것이다.”

이어서 진철수 회우가 초대 총무가 된 사실과 대학시절 연극활동을 하고 노래를 잘 불렀으며 영어에 능통했다고 63쪽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초대 총무는 진철수가 맡았다.(중략)

‘골수 언론인’

회우초대석

秦哲洙

미국AP통신 서울지국장
동아일보 워싱턴특파원
동아일보 편집국장대우
USA Briefing사장겸 주필(현)

인터뷰 글·사진 / 최희조(본보 편집위원·중부대초빙교수)

성격도 원만하고 열성이 있었으며 영어도 잘하고 나이도 선배격이어서 안성맞춤이었다. 진철수는 서울대 재학시절 연극반원으로 활동했다.목소리가 좋은 데다 노래까지 잘해 아직까지 그가 부르던 가곡을 떠올리는 (관훈클럽)회원들이 많다.독일 프랑스 가곡에도 능했던 진철수는 조지 거슈윈이 작곡한 ‘서머 타임’을 즐겨 불렀다.진철수는 특히 영어를 잘 했다. 회원들은 한결같이 그의 수준 높은 영어 실력을 칭찬한다. 미국 연수 때는 현지 대학교수들도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영어를 구사한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한다.”

신문의 경우 1면 제작에 내신 비중이 아주 높는데 그같은 편집도 문제입니다.말로만 국제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을 대문짝만 하게 심는 것도 문제구요. 1면의 소중함을 알고 스페이스 배정을 잘 해야 합니다. 어젠다 세팅(의제 설정)이 중요해요.미국 언론에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어젠다를 설정하면 다른 모든 매체는 거의 그대로 따라 오는 경향이 있어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그래서 권위자의 평가를 받는다고 봅니다.”

효암 이정석(1932~2008) 추모문집 ‘거인의 작은 이야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초창기 관훈클럽 회원들의 서울 우이동 야외회(1957년 4월 28일). 클럽 회원들은 신문의 날 제정,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결성, 신문윤리강령 제정 사업을 완료하고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앞줄 왼쪽부터 민병규, 강대원, 이정석, 진철수, 황경춘, 김보성. 뒷줄 왼쪽부터 김인호, 엄기성, 정신영, 조용중, 조세형, 최병우, 홍성원, 최동현, 정인양, 이경성 씨.

네트 매체 운영 하면 안타까워”

-연극을 하셨습니까.

“대학 2학년때 ‘여인’ 소극장 멤버였어요. 리더는 영문학자 오화섭 씨(1916~1979)의 부인으로 와세다대학 출신의 한국 최초 여류 연출가였던 박노경씨(1912~1950)였구요.6·25가 일어나 그만두었는데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연극을 계속했을 겁니다.”

요즘 한국 언론을 어떻게 보는지, 여쭙어 보았다.

“팩트(fact)를 중시해서 사실보도를 해야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균형감도 떨어지구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임팩트가 심각해요. 2년전 서울 촛불시위를 둘러싼 보도결과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보도내용이 판단을 오도하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무너뜨립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언론보도는 논리적 판별을 도와줘야 합니다. 한국

적고 있다.

“1990년대 시사주간지의 파리 주재 특파원을 마치고 귀국, 시간이 남아서 파트타임으로 라디오 시사해설을 하고 싶었을 때 이정석씨에게 부탁하여 KBS ‘생방송 오늘’프로에 참여, 제1라디오의 와이드 프로와의 인연은 그후 여러해 동안 계속되었다.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독자들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기자들의 본분이다. 그러나 그 본분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고 억압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았던가.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한 용기있는 언론인들의 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화한 오늘의 언론상황을 고맙게 여기며 건전한 언론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람들이 이정석씨 같은 인물들의 발자취를 소중하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문화일보 객원논설위원으로 기고한 칼럼 등으로 위암 장기연상(언론부문)을 받았다.

워싱턴 근처 메릴랜드주의 실버스프링에서 부인과 살고 있다. 2남2녀의 4남매 밑으로 8명의 친손, 외손이 모두 미국에 거주,다복한 일가를 이루고 있다.☞

金泰運의
술 이야기

⑨



金泰運 회우

위스키의 매력 (下)

생전, 장면(張勉) 국무총리는 술자리 이야기가 나오면 ‘카테일 파티’를 예찬하기 일쑤였다.

그는 이런말로 카테일파티를 감싸주곤 했다. ‘콜라잔을 들고 있기만 하면, 남들은 그 잔안에 ‘버번’이 들어 있으려니 하고 건배를 청해 온단 말이야.’

평소 술을 못하는 장 총리는 콜라잔으로 파티를 끝내곤 했었다.

버번 위스키(Bourbon whisky)는 정통 미국 술이다. 옥수수가 주원료이기 때문에 향도 독하고 술맛도 독하기 때문에 흔히 스트레이트는 피하고 다른 음료와 믹스해서 마신다. 주로 이용되는 것이 콜라와 진저엘.

콜라와 믹스 되었을때 버번콜, 진저엘과 믹스되었을때 버번진저엘로 부른다.

18~19세기가 걸쳐진 미국사회, ‘아메리칸 위스키’가 탄생한다. 이른바 버번 위스키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아메리카 증류주의 역사, 그것은 독립전쟁(獨立戰爭) 후 정부의 과도한 과세정책에 견디다 못한 제조업자들은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 캔터키주나 테네시주 등에 정착하게 된다.

여기서 그들은 기후풍토가 옥수수 재배에 적합한 것에 착안, 술의 원료로 옥수수를 투입하게 된다.

미국 연방법은 엄격하다.

아메리칸 위스키의 제조방법을 엄히 규정하고 있다. “위스키는 곡물(穀物)을 원료로 하여야 하며, 알콜 성분은 95도 미만에서 증류한 후 블렌딩, 알콜도수 40도 이상의 술을 병입한것” 이라고 못박고 있다.

여기에 병행해서 2년 이상 오크통에서 숙성된 것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정을 물에 희석시켜 금세 마셔버리는 우리의 소주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 위스키의 50%를 점하고 있는 버번 위스키. 그밖에 네 가지 타입의 아메리칸 위스키가 있음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① 버번 위스키 ② 테네시 위스키 ③라이 위스키 ④론 위스키가 그것이다.

이밖에 세계에 내로라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위스키가 몇있다.

저 유명한 “우리가 스카치 위스키보다 먼저다”고 지금도 우기고 있는 아일랜드 위스키다.

아일랜드 지방 서북쪽이 원산지인 아일랜드 위스키는 그래서 자긍심이 대단하다.

아일랜드의 특징은 ‘마일드’ 하다는데서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몰트 위스키가 맛으로 강(強)이라면 아일랜드는 약(弱)편에 속한다.

3년이상 숙성이라는 철칙을 지키듯, 아일랜드 또한 오랜전통을 세계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세계적인 브랜드 캐나다인 위스키가 있다. 영국계의 미국인들이 캐나다로 이주, 캐나다에서 만들기 시작한 명주로 미국의 금주 법 발효 이후 세계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한 것이다.

캐나다인 위스키에도 정부가 내린 철칙이 있다.

“캐나다인 위스키는 ①곡물(옥수수·맥아)을 원료로 하여 ② 효모로부터 발효시킨 후 캐나다 내에서 증류하여야 하고 ③180L 이하의 통에서 최소 3년간 숙성할 것” 으로 못박고 있는 것이다.

최소 3년간의 원주(原酒)숙성의 의무는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같은 것을 보면, 위스키의 이름이 붙는 술이라면 그 명품(名品)의 가치를 알만도 하다.

이와같은 명품 위스키에 ‘모독죄’를 범한 일을 본바다 스코틀랜드에서 저질러 왔으니 무식이 유죄랄까.....

두 번째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다.

마침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스코틀랜드의 저녁 날씨.

일행은 한잔할 겸 펍(pub)에 들어갔다.

간단한 요깃거리와 술, 그런 것들을 파는 집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하던대로 위스키를 주문하고 이어서 얼음, 그리고 물, 스트레이트 잔이 아닌 온드라스잔 등을 주문했다.

노리끼리한 놈들(우리)의 모양새를 한참 쳐다보던 바텐더.

“당신들 지금 뭘하고 있는 거야. 위스키에 얼음을 넣고 또 물까지 집어넣고... 당신들 지금 위스키를 모독하고 있는거 아니야?”

우리는 깜짝 놀랐다.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훑고 있는 그들의 음주습성으로 볼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는가. 바카스의 주인이여, 용서해 주시라.☞

살며 생각하며

霧津에서 만난 김승옥

김승옥이 쓴 소설 '무진기행'과 이효석의 '메밀 꽃 필 무렵'에는 비슷한 대목이 참 많습니다. 우선 글을 풀어 나가는 두 작가의 서술방식이 과거에의 회상, 그 중에서도 특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절실했던 젊은 날의 애욕(愛慾)을 기저에 둔 소설이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메밀 꽃 필 무렵'의 주인공... 왼손잡이에 반 고풍이었던 허 생원은 옷 벗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달빛이 화~안했던 달밤, 그 대낮같은 달빛을 피해 옷 벗으려 물레방아에 들어섰다가 거기서 그 봉평 마을의 규수를 만나 쉽게 일을 저지릅니다. 남자주인공은 일을 치른 후 그 마을을 떠납니다.

'무진기행'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제약회사의 전무가 되어 무진에 들른 주인공은 우연히 그곳 시골학교 음악 선생을 만나 그가 젊은 시절 수음(手淫)만 일삼던 바닷가 자취방으로 그녀를 유인, 너무나 쉽게 자빠트린 후 역시 그 마을을 떠나는 것으로 소설을 끝냅니다. 둘 다 애욕의 신비성을 다룬 소설입니다. 두 작가 공히 각각의 시절 엘리트였다는 점도 비슷한 점입니다. 1936년 월간 '조광(朝光)'이라는 월간지를 통해 소설 '메밀 꽃 필 무렵'을 등장시킨 작가 이효석은 당시 모더니즘을 추구한 경성제대 영문과 출신의 엘리트였다는 점에서, 그로부터 정확히 30년 후, 순천고를 졸업한 전라도 촌놈 김승옥이 당시 장래가 촉망되던 서울대 문리대 불문과 4학년 재학생으로 1964년 당시의 대표적 월간지인 '사상계'를 통해 소설 '무진기행'을 선보인 것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그러나 두 소설이 가장 비슷한 점은 작가 둘 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소설의 배경으로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메밀꽃 필무렵'의 작품 무대가 이효석이 태어난 고향 봉평이라는 점은 누구나 잘 압니다. 무진 역시 김승옥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무진(霧津)이라는 지명은 대한민국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지명입니다만, 작가의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그 무진이 바로 김승옥이 태어나고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바로 그 순천(順天)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게 됩니다.

빠어난 소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빠어난 고향을 뒤야 합니다. 작가는 그리고 보면 단순히 그 고향을 스토리에 기승전결 시키는 조작사(operator)에 불과할 뿐입니다. 두 작품 공히 작가의 고향과 일치하다보니 그 고향의 특산물 역시 소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작가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도 자연스런 귀결입니다. 달밤, 작가의 작중 표현대로, '소금을 뿌린 듯 한 봉평의 메밀꽃 밭'이 이 소설의 주조를 이뤘듯, 그래서 마침내 달밤의 광기를 작출해냈듯, '무진기행'의 산물(產物)인 '안개' 역시 작가 김승옥이 그 소설에서 열불 날 정도로 우려 먹고 지저 먹는

소설의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개'를 김승옥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지요. 소설은 광주 발 무진행 시외버스에 오른 주인공이 뒷좌석에 앉은, 그 고향 출신이 아닌, 무슨 시찰원인가하는 두 사람이 방문지인 무진을 놓고 시시껄렁 늘어놓는 이야기를 소설의 도입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무진엔 명산물이...뭐 별로 없지요?"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별게 없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조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심(水深)이 얕은데다가 그런 얕은 바다를 몇 백리나 밖으로 나



김 승 옥

· 본보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파리 특파원 ·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정읍 내장산을 둘러본 후 광주에 도착, 거기서 밤늦게 순천행 고속버스에 올라 포구에 들어설 무렵 저는 예의 그 안개를 만났습니다. 고속버스 차창을 향해 밀려드는, 작가의 표현대로 그 원귀의 입김 같은 안개를 씹며 나는 작가 김승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진이 바로 순천임을 거기서 깨달았지요.

절필작가로 바뀐 그 김승옥이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싶다는 소원이 너무 쉽게 이뤄진대 대해 저도 놀랐습니다. 순천엔 안개 말고도 갈대가 유명하더이다. 순천에 사는 친구의 안내로, 한참 '갈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순천만 갈대밭에 들렀을 때, 거기 '무진기행' 체험기라 쓴 간판 뒤쪽에 혼자서 머~영 하게 앉아있던 김승옥을 볼 수 있었지요. "거 혹시 김승옥 선생 아니시오?"라는 내 목소리에 그 역시 깜짝 놀라더이다. 그는 내 손바

그때 저는 기사를 둔, 제법 잘 나가는 입지에 있었지요. 그날 밤, 제 차편으로 셋이 도착한 곳은 자하문 근처에 살던, 피아니스트 신수정(당시 서울대 음대 교수)의 아파트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색골이었는데 그날 밤 그곳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김승옥은 신수정의 얼굴을 그려준다면 데생 종이와 연필을 들고 나타나더니 거짓말 안 보태고 1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의 '똥꼬'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여겼습니다만, 그건 아니고, 그리고 정말 웃겼던 건,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그의 얼굴에 물기가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

아아, 나는 직감했습니다. 신수정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실에 뻘질나게 들러 세수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하는 짓거리가, 학예회에 나가는 아동 그대로였습니다. 신수정은 내막을 몰랐고, 윤정희와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김승옥...여자라면 한마디로 사족을 못 쓰는 사내였습니다.

그 색골기질은 그의 소설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소설 '서울, 1964년 겨울' 이던가에서는 애인과 데이트를 하기 직전 꼭 종로 3가에 들러 그 일을 치르고 나오는 주인공이 묘사되어 있지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도 제게 들려주더이다. 대학 1학년 때(그는 불문과 60학번입니다) 이만갑 교수의 사회학 원론 강의를 들으러 갔답니다. 첫 강의시간 이만갑 교수가 들려주는 결혼에 대한 사회학적 정의를 듣는 순간, 아, 학문은 정말 쓰잘데가 없는 거구나... 하고 자탄을 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결혼에 대한 사회학적 정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에 이런 것이 있지요. "결혼이란 합법적인 성생활을 뜻한다."

김승옥과 헤어져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시사저널'에 함께 있던 김훈이 큰 작가로 대성했다는 말을 들려주자 그 역시 "그래, 정말 그래" 하는 표정을 지으며 부러워하는 눈짓을 짓더이다. 그래서 그를 부추겨줬지요. "야나, 당신만 못 해! 당신이 더 나은 작가라고!" 하고 큰 소리를 질러줬더니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속으로는 적이 만족한 표정을 짓습니

다. 돌아올 때 그의 소설 말미에 나타나던 "당신은 지금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던 뜻말은 나타나지 않더이다. 그 야리꾸리하던, 작가 김승옥의 소설기법상의 앵스트루르망이 뒤틀린 안개도 보이지 않았구요. [4]

고향에서 우연히 해후 ... 옛 추억 새로이

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오는 곳이니까요." "그럼 역시 농촌이군요." "그렇지만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오륙 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들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그럭저럭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점잖게 소리 내어 웃었다. "원, 아무리 그렇지만 한 고장에 명산물 하나쯤은 있어야지." 웃음 끝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운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뺨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해쳐 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싸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탁에다 '뇌'자를 적어 보이더이다. 나는 대번에 알아차렸지요. 뇌졸중을 일으켜 언어 마비가 왔다는 얘기였습니다. 말 알아듣는 데는 하등 불편이 없었구요. "김승옥 씨, 무진이라는 데가 어디요? 실명 아니지? 바로 이곳 순천을 말하는 게지?" 나는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이다.

김승옥이 그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앉아있던 그 갈대밭은 소설 속에서 음악교사를 자빠트린 주인공이 노래를 불러주겠다는 여인에게 끌려간, 바람 불던 갈대 밭...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김승옥은 내 손바닥에 이번에는 '박'자를 적습니

"당신, 그 여기가 좋아했잖아?"하면서 내가 큰 소리로 웃자 김승옥은 아니야 아니야라고 사래를 치며, 그러나 조금 붉어진 얼굴로 "그 여자 보고 싶다"는 표정을 계속 짓더이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암 보고 싶고말고, 나도 박선연이 보고 싶은 걸..."

김승옥은 타고 난 색골(色骨)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사저널' 시절, 일시귀국 중인 파리의 윤정희를 데리고 제 사무실을 노크한 김승옥이 어딘가 가자며 제 차를 동원하라는 겁니다.

미니회고록

‘아프리카 추장’ 取材記

방송기자 30년, 이 경력 덕택으로 현재 대학교수생활 7년째 접어들고 있다. 방송기자에 이어 지금까지도 나는 대학교수보다 “아프리카 추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KBS기자동료와 선후배들이 지금도 나를 만나면 “아프리카 추장! 윤추장!” 애칭으로 호칭한다.

나는 이때마다 30여 년 전 경찰기자 시절의 취재열정이 추억으로 되살아난다. 1978년 8월 27일 당시 종로경찰서 출입 기자였다. 성북경찰서 형사인 고교동창 이봉주의 제보를 받아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국민대학교 뒤 삼각산 일대에 사이비종교의 무허가 암자와 기도원에서 무당굿을 하는 등, 자연을 파괴하는 현장을 고발해 KBS 9시 토크뉴스로 보도했다. 당시 자연보호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펼쳐진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은 주말마다 우이동과 정릉 계곡 등에서 쓰레기를 직접 주우면서 자연보호에 앞장서던 때였다.

당시는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사이비종교의 자연보호여행 고발 뉴스는 매우 큰 화제가 되었던 충격적인 뉴스였다. 이 뉴스를 시청한 박정희 대통령은 뉴스가 끝나자마자 즉시 KBS 홍경모 사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KBS뉴스를 극찬하며 격려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내에 방송 신문사 등 전 언론사에 전국 유명한 산의 자연파괴 현장고발을 보도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 날 KBS 김경식 보도국장은 박 대통령의 KBS뉴스 보도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받아 매우 고무되었으며 KBS뉴스 초점을 자연보호 파괴현장에 맞추도록 지시했다. 당시 무더운 여름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삼각산 일대 50여개의 무허가 암자와 기도원, 무당굿 현장에서 낄밤을 새워가며 황성규, 김광남 카메라기자들과 함께 취재에 지칠 줄 몰랐다. 자연을 파괴하는 무허가 사이비종교인들은 자연석을 캐내고 나무를 뽑아 터를 닦아 무허가 건물을 짓고 콘크리트로 산신각(山神閣)을 만들어 장난감 같은 불상을 세워놓았다. 산에서 잘 안 보이는 경관주변을 무허가로 마구 파헤쳐 기도원을 지어 산돼지의 배를 갈라 춤을 추면서 당시 1 억

원이 넘는 무당굿을 하는 등 자연파괴는 실로 엄청났다. 1978년 8월 이후부터 2달 동안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주요 일간지와 MBC, TBC 방송사와 통신사 등 전 언론이 서울 관악산을 비롯해 계룡산, 광주 무등산 등 전국의 주요 산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일부 신문은 “자연도 건전식도 좀 먹는 신앙무법의 현장”이라는 기획 시리즈로 연일 보도했다. 당시 종로경찰서 출입기자 동료들은 KBS 윤재홍 기자 때문에 사건기자들이 사건 취재 대신 전국의 유명산에 오르내리면서 밤낮없이 자연파괴현장을 취재하며 고생하게 했다고 투덜거리기도 했다.

1978년 10월 14일자 한국일보 1면 토크기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연보호관계관 회의를 소집”, “전국 명산 무허가 건물 3월까지 철거”, “내가 직접 현장 보겠다”, “무허가 시설물을 보면 등산객도 신속히 신고해야” 등의 내용으로 실렸다. 나는 이 기사의 특종보도로 78년 12월 한국방송협회가 주는 취재부문 기자상과 제 2회 KBS 방송대상(취재부문)을 받았다.

KBS 김학영 사회부장은 나의 수상을 축하하는 KBS 사회부 전체회식을 한 자리에서 “윤재홍 기자는 아프리카 상공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사막에 떨어트려 놓으면 1주일 안으로 아프리카 추장이 되어 나올 놈이다.”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사건기자로 대성공을 했다”며 축하건배제를 했다. 당시 KBS사회부 20여명의 기자들은 이를 계기로 나의 별명을 “아프리카추장! 윤추장!”으로 명명하여 30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나는 경찰기자 시절에 임관(?)된 아프리카추장 별명의 힘으로



윤재홍

- 본회 회우
- 전 KBS 제주 총국장
- 경기대 정치매체 관리학과 학과장

기자 58세 정년까지 특종상과 한국 기자상, 공로상 등 십 여건의 많은 상을 받는 행운을 차지했다.

가장 힘들었던 취재는 목숨을 잃을 뻔했던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에 이은 광주민주화 운동이었다. KBS 본사 기자는 의무적으로 지방에 1년씩 파견되었다. 당시 KBS광주방송 총국기자로 역사적인 광주민주화운동

취재현장을 누볐다. 이때는 철저한 군부의 언론통제로 계엄군이 모든 신문과 방송기사에 대해서 사전검열을 했다. KBS는 당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계엄군이 광주시민에 대한 가혹행위보다 시위대가 계엄군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화면과 기사로 편파보도를 했다. 당시 광주현장에서 전국뉴스보도를 전담한 나는 광주시민 편에서 보도하지 못한 아픔 속에 퇴근할 때는 안경을 벗고 얼굴에 솟을 바르는 등 KBS기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전남일보 사옥건물에는 “편파 보도하는 KBS 윤재홍기자 죽여라”라는 플래카드까지 걸려 무척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KBS 광주방송 총국은 당시 광주역 앞 종근당 빌딩에 있었다. 시위 군중들이 KBS 편파 보도를 항의하며 KBS사옥에 불을 지르기 위해 물러들자 사옥지하에 있던 군인들이 시위 군중을 향해 최루탄을 터트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공포의 한 시간.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시위 군중에게, 건물 안에 있으면 불에 타 숨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광주역에 주둔한 군 탱크부대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목숨을 건 취재와 보도 열정으로 서울본사에 올라와 광주민주화운동 취재보도로 공로상을 받았다.

1989년에도 KBS1TV 목요기획 보도특집(50분) “파멸의 무지개 히로뽕”이라는 제목의 백색가루의 공포를 새삼

일깨워 준 마약의 추적자로 제 21회 한국 기자상을 수상했던 것도 역시 추장 별명의 실력을 발휘했던 사례다. 이 보도특집은 대검찰청 마약과 수사관들과 함께 40여 일 동안 서울, 인천, 부산 등 마약밀매와 투약현장에서 위협과 협박 속에서 밤낮을 바뀌가며 현장을 추적해 보도했다. 서울 유흥업소 마약투약자를 찾기 위해 여자화장실 휴지통까지 뒤져 주사기를 찾아내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특집보도는 KBS에서 3차례나 앙코르 방송이 나갔고 전국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도 방영되었다. 이 기사상 덕택에 매일 홀로 집을 지키던 아내와 함께 일주일동안 인도여행을 하는 행운을 갖기도 했다.

또, 1980년과 1992년 두 차례 정치부 기자로 국무총리실과 국회, 정당 등을 취재하면서 추장별명의 저력으로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3金시대를 현장에서 취재보도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특히 1992년 제14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방송한 KBS해외보도특집 “선진의회정치” 편에서 영국과 스웨덴, 일본 등 2편을 한 달 동안 해외취재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모순된 의회정치를 바로잡고 국회의원과 국민모두가 그릇된 정치사고방식을 고쳐 국민의식을 개조하는 역할을 했으며 국회도서관 개방에도 큰 힘을 보탰다.

이 밖에도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한국국민의 의식을 국제화 수준에 맞추기 위해 기획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4개국의 음주운전 퇴치와 교통사고 예방과 대책 등 해외취재, 1993년 9월 “한중수교 1년 달라진 한중관계”, “12억의 만리장성을 잇자”, 1994년 5월 “서울 모스크바, 타슈켄트 새 협력시대를 열다”는 김영삼 대통령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순방 등 해외보도 특집 등이 모두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아프리카추장 정신이 한국 언론의 역사에 한 토막을 장식할 수 있었다고 본다. [4]

한국 노년 소비자 보호연합 ‘마패 감시단’ 전국 돌며 활동

사람은 먹어야 산다. 밥을 먹고 나이도 먹는다. 인생 70은 드문 일이라 했지만 이제 100살 사는 것도 흔한 일이다. 산고(産苦) 생고(生苦) 노고(老苦) 병고(病苦) 사고(死苦)로 이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나무처럼 나이테(연륜)를 따라 일컫는 대명사도 있다. 유년 초년 소년 청년 장년 중년 숙년 노년 만년(晩年) 말년 모년(暮年)이라 구분한다. 그 중에서 노년(老年)층 이상을 늙은이(노인)라 한다.

지나온 세월보다 걸어갈 길이 짧으면 노인이다. 회갑을 지나야 어른대접을 받고 지하철 공짜 타는 세대(지공세대:UN이 정한 65세 이상)라야 노인축에 든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2세

(북한 69.3세)로서 고령사회로 급진하고 있다. 이들은 연령적인 노약자요, 건강상의 쇠약자요, 경제적인 빈궁자이며, 정신적인 불안자요, 영적인 허탈자로 넘어지기 쉽다. 이 틈새를 노리고 덤벼드는 마귀의 손길이 있다. 사은품이나 오락거리 제공을 미끼로 엉터리 보약, 가짜 건강식품, 저질상품 따위를 허위 과장 홍보함으로써 충동구매를 부추긴다. 이른바 홍보판 지하방 땃다방을 조심하고 무점포 노상판매에 한 눈 팔지 말아야 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믿고 사며 즐겁게 쓰는 노년층 소비문화를 창조해야겠다”고 일어난 것이 사단법인 한국노년 소비자보호연합(약칭 ‘한노연’)이다. 현



제재형

- 본회 고문
- 한국 노년 소비자 보호 연합 회장

역 국회의원 10여명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유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작년 7월 6일 창립하고 지난 1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제2010-01호)을 받았다. 비정부 민간단체(NGO)로서는 유일무이한 노년소비자보호 법인이다. ‘한노연’은 자원봉사하는 ‘마패 시민감시단’을 방방곡곡에

풀어 사기판매 현장을 잡아 고발하며 피해구제에 앞장 설 것이다. 복지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는 노인은 겨우 50만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인 700만 노인은 폐품처리장에 팽개치듯 방치된 상태에 놓여 있다. 전국 6만개소를 헤아리는 경로당·노인정에 자체개발한 IT 영상기를 보내 손가락만 갖다 대면 쉽게 보고 즐기도록 여가선용을 권장할 것이다. 경험과 관록있는 할아버지들로 하여금 경로당을 ‘마을서당’으로 활용, 한문 붓글씨 영어 일어 등을 가르치게 할 것이다. 이런 사업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엉터리 장사치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상담 및 기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우수고령화 상품을 선정하고 유통업체를 지원육성할 것이다. 보이스 피싱 등 불법행위도 막아낼 것이다. [4]

CO₂ 다이어트가 지구의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도 헬스클럽에서 땀을 흘린 당신, 이제부터 CO₂ 다이어트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에 심각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CO₂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신의 현명한 선택 -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남동발전이 함께 합니다.



中國華山

바위산 · 칼날 능선의 짜릿한 秘境

중국 5악(五嶽)중 가장 험하다는 후아산(華山)에 올랐다. 뤼예봉(落雁峰), 차오양봉(朝陽峰), 렌화봉(蓮花峰), 윈타이봉(雲臺峰), 위위봉(玉女峰)의 다섯 개 봉우리가 깎아지른 듯 우뚝 솟은 높이 2,437m의 험한 바위산이다.

2월의 날씨치곤 영상 12도까지 올라 포근하다. 고비사막이 가까워 누런 황사 띠가 산허리에 걸렸지만 산정에 오르면 파란하늘아래 바위산 칼날능선의 비경이 펼쳐져 탄성이 절로 나온다. 후아산을 왜 서있는 산, 외길의 산, 도인의 산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서 있는 산

후아산은 세계 4대 고도(古都)로 불리는 시안(西安)에서 동쪽으로 120km, 버스로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했다. 후아산풍경구에서 내려 셔틀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오르니 후아산의 산문인 옥천원(玉泉院), 케이블카 타는 곳이다. 총 길이 1,550m의 케이블카 아래 절벽 사이로 돌계단 길이 예리한 곡선을 그리며 스쳐가 오금이 저리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북봉으로 향하는 칼 능선에 기념정과 운대산장을 지어놓았다. 화강암에 붉은 글자로 새겨 놓은 화산논검(華山論劍) 표지석 앞에서 젊은이들이 옛 복장과 장검을 빌려 무림고수처럼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눈이 쌓여 미끄러운 바위 능선을 타고 북봉의 정상 윈타이봉(雲臺峰)에 올랐다.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들이 파란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중국의 오악지존(五嶽至尊) 가운데 ‘서있는(華山而立)’ 산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바위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의 강인한 생명력도 놀랍다.

동악인 산둥(山東)성의 타이산(泰山)은 앉아 있고(泰山如坐), 남악인 후난(湖南)성의 형산(衡山)은 날아갈듯(衡山如飛)하며, 북악인 산시(山西)성의 형산(恒山)은 움직이는 것(恒山如行) 같고, 중악인 허난(河南)성의嵩山(嵩山)은 누워있다(嵩山如臥)고 할 정도로 산세가 뚜렷하게 다르다. 화산은 서악으로 봉우리 다섯 개가 마치 꽃잎이 다섯 장 달린 꽃을 닮아 ‘꽃 같은 산’이라고도 한다.

後代먹여 살리는 진시황제

중국 역사상 최대의 폭군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진시황제(秦始皇帝·BC 259년~BC 210년)가 중국인을 먹여 살리고 있다. 진시황릉과 병마용갱을 찾는 국내 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관광수입이 늘고 있다. 춘절 연휴를 맞아 병마용갱 전시실과 박물관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1974년 우물을 파다 우연히 발견한 농부 세 명이다. 양신만(楊新滿) 씨는 2호갱 입구에서 관광패플릿 사인을 해주며 돈을 번다. 일반 매점에서 정가 68위안하는 패플릿을 180위안이나 받는 데도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필자는 한글

이 규 섭

- 본보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깎아지른 듯한 암벽과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계곡은 웅기험준(雄奇險峻)하여 지난 수 세기동안 무수한 침략자들로부터 옛 수도 장안(長安)을 지켜냈고, 대 황하의 물줄기를 바꾸어놓았다. 무협지의 주무대로 무림고수들의 목숨을 건 마지막 결투가 이곳에서 이루어져 화산논검(華山論劍)이라는 말이 생겼다.

▲외길의 산

후아산을 오르는 가장 일반적인 코스는 북봉(1,614m)에서 시작된다. 옥천원에서 북봉까지는 6km, 3시간 넘게 걸린다. 대부분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북봉까지 올라→중봉(2,042m)→동봉(2,090m)→최고봉인 남봉(2,160m)→서봉(2,080m)을 거쳐 북봉으로 되돌아오는 트레킹 코스다. 숲길과 흙길, 능선길이 교차하는 아기자기한 한국의 등산로와는 달리 바위를 정으로 쪼아 만든 인공의 계단 길을 따라 걷는 외길이다.

암벽에 귀를 비비듯이 올라가는 찰이애(擦耳崖)와 쇠줄을 잡고 암벽을 자벌레처럼 기어오르는 상천제(上天梯)는 시작에 불과하다. 푸른 용의 등을 닮았다는 창룡령(蒼龍嶺)은 좌우가 낭떠러지다. 거대한 바위 등줄기에 정으로 쪼아 만든 530개의 돌계단은 경사가 40도로 가파르데다 길 폭이 좁아 두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어 아슬아슬하다. 당대의 문장가 한유(韓愈·768~824)는 창룡령에 올랐다가 진퇴양난의 험준한 산세에 놀라 대성통곡 한 뒤 책을 던져 구조를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자 결국 자살했다고 한다. 시신이 발견된 곳에 ‘한퇴지투서처(韓退之投書處)’라 새긴 추모탑을 세워 놓았다. 1,600m나 되는 수직 낭떠러지 절벽에 바위를 파서 만든 홈과 나무판으로 엮어 놓은 장공잔도(長空棧道)는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난다. 잔도란 사다리처럼 엮어서 만든 길이란 뜻.

중봉인 위위봉(玉女峰)은 웅장한 자

태와 남성다운 기상이 넘친다. 동봉인 차오양봉(朝陽峰)은 이름 그대로 일출 명소. 남봉 정상에는 바위가 패여 물이 고인 양천지(仰天地)라는 못이 있다. 서봉은 거대한 돌의 생김새가 연꽃과 같아 렌화봉(蓮花峰)이라 한다. 트레킹 코스는 약 9km에 4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도인의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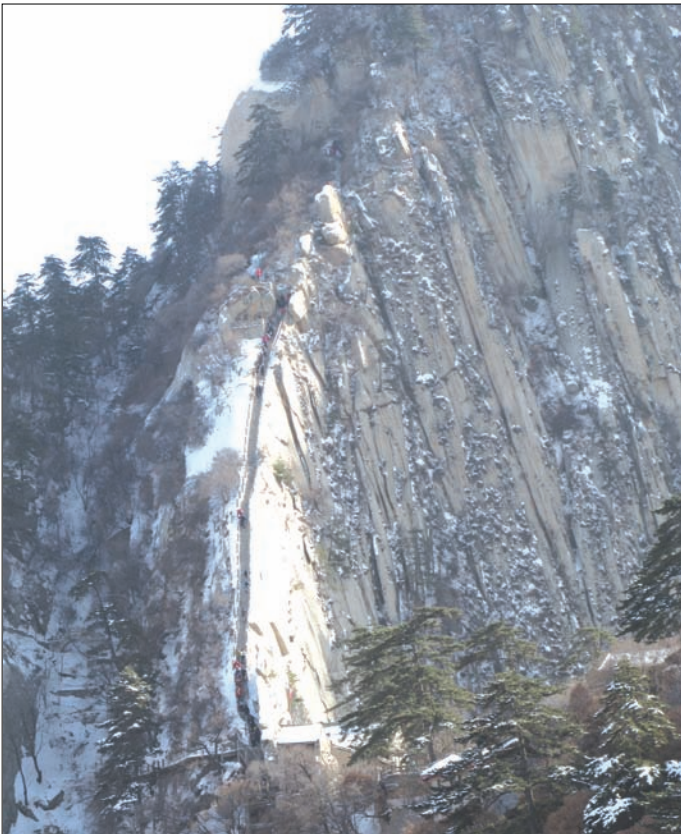
화산은 도교(道教)의 발상지이자 진흥지로 유명하다. 다른 명산들은 도교의 도관(道觀)과 불교의 사찰이 혼재되어 있지만, 화산은 유일하게 불교사찰은 없고 도관만 존재한다. 지금도 중국 고대부터 이어 내려온 도교(道教)의 옛 사원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200여 개의 크고 작은 도관이 있다는 것. 양귀비가 양태진(楊太真)이란 도호(道號)로 여도사 생활을 한 곳도 후아산이다.

유교가 사회철학에 가깝고, 불교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라면 도교는 중국의 진정한 ‘토착종교’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치고 도덕경 한 줄 안 읽는 이가 없다. 마오쩌둥은 평생 그 책을 끼고 살았다고 한다. 도덕경을 주문처럼 외운다고 식자나 도인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닐 터. 첨단 과학문명 시대에도 우화등선(羽化登仙)을 꿈꾸는 도교수행자들이 화산을 찾는 이유는 스스로 자연과 동화되어 기운수행을 하기에 신성한 기운이 감도는 산이기 때문일 것이다.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화산논검(華山論劍) 표지석 앞의 필자. 무림고수들의 목숨을 건 마지막 결투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푸른 용의 등을 닮았다는 창룡령(蒼龍嶺)은 거대한 바위 등줄기에 정으로 쪼아 만든 530개의 돌계단으로 좌우가 낭떠러지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첫 머리에 나오는 도교(道教)사상의 중심 개념이다. ‘생각될 수 있는 진리는 절대적 진리라고 할 수 없고,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진리는 영원한 진리라 할 수 없다’는 등 관점에 따라 해석도 다르다.

후아산에 오르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은 진정한 길이 아니다’는 것을 절감한다. 평지만 걸어온 평탄한 인생 보다, 질곡의 가시밭길을 걸어보야 성취의 기쁨과 삶의 의미를 깨닫듯, 험준한 바위산 돌계단을 오르며 발아래 펼쳐진 선계의 풍광을 가슴으로 품는다. ㉠

大韓言論人會 분과위원장들의 포부

본회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전문위원회
위원장 정형수

본회 운영 규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장의 지시를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능동적 기능의 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위원들이 의견을 교환, 정리할 수 있는 모임을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업’에 시선 돌릴터



특별사업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대한언론인회의 취약한 재정 기반으로 볼 때 앞으로 광고유치는 필수적 생존전략이므로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회원 책임제로 광고를 유치해 보면 어떨까 한다. 자동차보험 유치 인쇄물 수주 등 ‘영업’에 시선을 돌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이며 공이 있는 회우들에게는 반드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 일신 계획



사이버위원회
위원장 맹태균

회우들이 늘그막에 디지털시대와 즐겁게 동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홈페이지는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회보 PDF 게재와 아울러 콘텐츠도 개발하고 뉴스도 업데이트 할 것이며 이슈마다 파이팅 해 홈페이지의 면모를 일신하고자한다.

현실에 맞는 예산운용



복지기금 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명근

본회가 폭넓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제1의 과제다. 본위원회도 여기에 발 맞추어 전체적으로 실행예산을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자 감소와 광고시장 위축에 대비해 예산의 긴축 절약이 불가피하다. 심도 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하겠다.

운영규정 등 정비 추진



법규위원회
위원장 이상갑

대한언론인회 정관과 기타 언론인회 운영규정 중 상호·모순 또는 표현상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 이번 임기 중에 대한언론인회가 보다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회 위상 제고에 앞장



홍보섭외분과위원회
위원장 신동식

우리 위원회는 본회의 업무를 안팎으로 홍보하고 정부 관계 기관이나 유관 단체와의 교섭을 임무로 하고 있다. 전위원이 홍보 섭외위원이라는 인식위에서 본회를 적극 홍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한언론인회의 목소리를 내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작정이다.

발전기금 모금에 앞장설터



발전기획위원회
위원장 박기병

발전기획위원회가 할 일이 많았으면 한다. 우선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이며 언론관계 단체 및 언론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분과위원들 모두가 일심협력 하여 기업 및 기금 관리재단과 접촉, 본회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도록 솔선 노력할 계획이다.

공로 회우 격려



자격, 상벌심사위원회
위원장 홍승국

제17대회장단이 새로 출범한 만큼 친목·복지·언론창달이라는 설립 목적 구현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위원회도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별히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공로가 많은 회우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도 신경을 쓰겠다.

국익 위한 정론지 돼야



논설위원회
위원장 이형균

대한언론인회는 그동안 격조 높은 주장과 주의를 펴으로써 각계의 관심을 끌어 왔다. 앞으로 더욱 격조 높은 주의, 주장을 펼치도록 논설위원 모두의 고견을 듣고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 대한언론인회는 어디까지나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회보에 사설란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형태로 우리의 주장을 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의료비 지원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익수

회원들의 연령대가 갈수록 고령화 하는 추세에 있어 금후 의료비 지원 지급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집행부 측에서 이 문제를 신속성 있게 운영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금 신청 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 회원들이 많은 시일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언론인장’ 추도식으로



행사집행위원회
위원장 이보길

모든 행사가 원활하고 매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건강강좌를 매월 실시하고 적당한 기회에 1박 2일 건강여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역사탐방 때는 사진콘테스트를 실시해 상품을 마련하는 등 재미와 함께 취미 생활을 권장하고 언론인장은 유가족이 원할 경우 발인 하루전 추도식으로 거행할 계획이다.

자유언론창달 기대



편집위원회
위원장 성낙오

‘대한언론인회가 사회 원로로서 자유언론의 창달과 언론산업의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행인의 취지에 맞게 회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회보가 모든 회우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대화와 소통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회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대한언론인회 분과위원 명단

〈괄호 안은 전직, 가나다 순〉

◎ 원로위원회

〈위원장〉김진섭(동화통신 편집국장) 〈간사〉김명구(대한일보 정치부장) 〈위원〉 (지면 관계로 전직을 생략함을 양해 바랍니다) 계성일 고재봉 곽노형 곽찬호 구본건 김경래 김귀제 김병석 김용구 김용수 김원달 김운덕 김운진 김일택 김재영 김정한 김준하 김 집 김천길 김춘봉 김태운 김 호 나필성 동문성 동홍석 문계준 문제안 민 기 민규호 박권상 박문송 박영래 박영식 박용운 박재권 박정하 서강화 안현태 엄기형 오정수 오관룡 우경식 유성열 유승택 유일연 윤임술 윤주영 이경남 이귀암 이명동 이문홍 이배국 이병천 이상원 이석홍 이세환 이순기 이종완 이종운 이지웅 이필연 이해복 임기호 임인흡 임학수 임홍빈 정광현 정기백 정범태 정재도 정재호 정준모 조동오 조동표 조성국 조용중 주영관 지갑중 지연홍 진철수 최덕모 최무룡 최병욱 최원각 최일영 최창봉 한영섭 현영건 현원복 현준건 호현찬

◎ 자문위원회

〈위원장〉박영길(일간스포츠 편집국장) 〈간사〉박연호(국민일보 문화부장 논설위원) 〈위원〉 김수웅(KBS라디오 편성국장) 안병훈(조선일보 편집국장) 이배영(세계일보 편집국장) 조남조(중앙일보 정치부장) 천상기(내외경제 부국장) 한영섭(KBS 보도실장) 한경석(동아일보 편집부장) 황우권(서울신문 편집부장)

◎ 전문위원회

〈위원장〉정형수(동아일보 동경특파원) 〈간사〉김시복(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위원〉 김재영(서울신문 지방부장) 김 철(동아일보 국제부장) 김 화(경향신문 편집위원) 박석흥(문화일보 논설위원) 천승준(동아일보 편집위원) 최병오(한국경제 편집위원) 최상완(경향신문 조사연구실장) 한영탁(세계일보 논설위원)

◎ 발전기획위원회

〈위원장〉박기병(부산일보 정치부장) 〈간사〉이상호(문화일보 편집위원) 〈위원〉 권혁만(한국경제 정경부차장) 오근영(연합통신 편집국장) 오전식(중앙일보 정치부장) 임응식(KBS 해설위원장) 장두원(KBS 전주총국장) 지갑중(연합신문 정치부차장) 정성진(기독교방송정치부장) 조광현(KBS 해설위원)

◎ 복지기금 관리위원회

〈위원장〉박명근(MBC보도국 기자) 〈간사〉정운중(상임이사 당연직) 〈위원〉 김진기(KBS 워싱턴총국장) 김영호(한국방송공사 기자) 김호곤(조선일보 교열부차장) 신광식(KBS 정치부장) 이해성(한겨레신문 문화부장) 황원갑(서울경제 문화부장)

◎ 법규위원회

〈위원장〉이상갑(KBS 해설위원) 〈간사〉신현구(일간스포츠 편집부장) 〈위원〉 공대식(문화방송 해설위원) 구월환(세계일보 주필) 김상수(KBS

대전방송총국장) 김종열(국민일보 체육부장) 이세환(한국일보 편집부국장) 이승남(경향신문 주간경향편집부장)안성열(평화방송 보도국장)

◎ 사이버위원회

〈위원장〉맹태균(조선일보 편집부 차장) 〈간사〉김선기(KBS 해설위원) 〈위원〉 나용경(일간스포츠 교열부장) 노상국(동아일보 심의위원) 백일진(스포츠조선 편집부장) 양성목(경향신문 체육부장) 이대영(경향신문 편집부장) 이상호(경향신문 편집위원) 조천웅(동아일보 사진부기자)

◎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홍승국(KBS 편집부장) 〈간사〉이창호(매일경제 편집부국장) 〈위원〉 김건이(세계일보 수석논설위원) 김한봉(대한일보기자) 송경섭(KBS 뉴욕지국장) 정종표(KBS부산방송총국 보도국장) 정희준(KBS 스포츠국장) 최상목(동아일보 편집위원) 황대연(조선일보 매일신문 편집위원)

◎ 특별사업위원회

〈위원장〉권영국(CBS 해설위원장) 〈간사〉김세경(연합통신 편집부국장) 〈위원〉 김호곤(연합통신 교열부장) 위상욱(조선일보 제2사회부장) 이상우(경향신문 편집위원) 이우진(한국경제 사진부장) 이현구(조선일보 편집부국장) 정병교(대한일보 경제부차장)

◎ 행사집행위원회

〈위원장〉이보길(KBS홍보부장) 〈간사〉나용경(일간스포츠 교열부장) 〈위원〉 김용발(헤럴드경제 산업부 차장) 김정기(서울신문 편집부국장) 여구만(경향신문 편집위원) 이달영(현 한국 홍보연구소 대표) 임상학(경향신문 교열부장) 최상목(동아일보 부국장)

◎ 홍보섭외위원회

〈위원장〉신동식(서울신문 편집부국장) 〈간사〉김휴선(MBC TV뉴스데스크 부장, 부국장) 〈위원〉 고수웅(KBS 경제부장) 김길홍(경향신문 정치부장) 김승호(경향신문 문화부장) 김정일(시사통신 정치부기자) 오건환(KBS 경제부장) 윤종보(문화방송 해설위원) 정웅교(스포츠서울 교정부장)장 욱(경향신문 뉴스메이커 부장)

◎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장〉김의수(내외경제 증권부장) 〈간사〉강진형(한국경제 편집위원) 〈위원〉 김성수(한국일보 사진부차장) 백환기(동아일보 편집위원) 이우진(한국경제 사진부장) 오동환(경향신문 논설위원) 장석훈(조선일보 교열부차장) 주종환(조선일보 교열부차장) 최무룡(대동신문 기자) 한동희(매일경제 편집국장)

◎ 편집위원회

〈위원장〉성나오(동아일보 편집국장 대우) 〈고문〉김해도(한국일보 논설위원) 〈위원〉 김윤석(서울경제 편집국장) 박정진(세계일보 논설위원)

鄭文植 회우 별세



정문식 본회 회우(전 서울신문 공익사업부장)가 2월 19일 오전 10시 8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고인은 1928년 함경남도에서 출생, 53년 국민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한뒤 언론

계에 투신, 대동신문 사회부, 상공일보 사회부, 일요신문 취재부, 서울신문 사회부차장 공익사업부장을 역임했다. 고인의 유해는, 21일 오후 2시 발인해 용인 공원 묘지에 안장 됐다.



홍원기 회장이 문상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조용하고 정의감 넘친 언론인 -鄭文植 동지의 명복을 빌며

유승택(본회 회우·전 신아일보 편집국장)

2월 19일 작고한 정문식 형. 1928년 생 고령임에도 건강을 과시했던 그였는데.....

그는 함경도 태생이다. 조국해방과 함께 공산치하가 싫어 고향을 등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같은 무렵 함경도에서 남하해 언론계에 활동한 동료는 차광선(세계통신), 장명덕(합동통신), 김도홍(동아일보), 서승백(산업경제) 등 수도서울의 이름 있는 언론인이었다. 아직도 생존한 함경도 출신 언론인은 한예근(미국 이민), 박문송(전 시사통신 편집국장) 등 몇 사람이 고작이다. 이들은 모두가 팔순전후의 고령자들이다. 이들과 함께 일선기자 생활을 한 동지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알래스카”니 또는 “빨치산”이라 애칭 했다. 최근 전라도 법원 어느 젊은 판사가 빨치산을 미화(?)하는 판결을 내려 기성시대의 공분을 산바있다. 일이 빠진 판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복을 탈출한 언론인들을

동료들이 빨치산이라 부른 것은 농담 반의 우스개 호칭이었다. 그들만큼 방공에 투철했던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일선기자로 활약했던 정문식 동지의 학구열 또한 대단했다. 53년에 국민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으며 이어 68년에는 고대 경영학부를 수료했다. 그의 언론계 발자취는 대동신문, 상공일보, 일요신문 등 사회부기자로 활동했고 서울신문 사회부차장, 공익사업부장을 지냈다. 언론계를 떠난 다음에도 (주)천수화학을 운영, 왕성한 노후생활을 즐겼다.

이제 유명을 달리한 정문식 동지는 퇴직언론모임인 ‘구인회’에도 자주 얼굴을 보였다. 그 좋아했던 술도 끊다시피 절주를 한 것으로 보아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늘 조용하고 말씨도 가라앉는 목소리로 “해가 거듭될수록 친구의 전화횟수도 줄었다”며 쓸쓸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신대근(문화방송 보도제작국장) 이규섭(국민일보 논설위원) 이보길(KBS해설위원) 이재승(한국일보 논설위원) 전용호(동아일보 여론연구팀장) 정일화(한국일보 논설위원) 최희조(동아일보 경제부장) 호천웅(KBS 사회부장)

◎ 논설위원회

〈위원장〉이형균(경향신문 편집국장) 〈고문〉문명호(문화일보 논설주간) 〈위원〉구건서(경향신문 논설위원) 구종서(중앙일보 논설위원)김담구(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승웅(한국일보 파리티특파원) 김운곤(조선일보 국제부장) 남시욱(문화일보 사장) 박경석(동아일보 논설위원) 박연호(국민일보 논설위

원) 박화진(서울신문 논설실장) 손기상(중앙일보 논설위원) 손세일(동아일보 논설위원) 송두빈(내외경제 편집국장) 신동철(중앙일보 논설위원)신동호(동아일보 뉴욕특파원) 여영무(동아일보 논설위원) 윤상철(경향신문 주필) 이광영(한국일보 편집위원) 이병국(한국경제 편집부국장) 이성춘(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억순(세계일보 주필) 이형(한국일보 논설위원) 임한순(연합통신 외신국장) 전진병(동화통신 정치부장) 정성진(기독교방송 정치부장) 정재호(경향신문 논설위원) 조규진(경향신문 수석논설위원) 조봉균(동양통신 기자) 지용우(경향신문 논설실장) 최서영(코리아헤럴드 사장)

회우동정

(가나다순)

남아공 월드컵 경기장 시찰



★강명수 회우 = 2009년12월 19~29일 남아공 월드컵 주경기장등을 둘러보고 잠비아를 거쳐 귀국.

동남아 5개도시 역사문화탐방



★안중우 본회 이사 = 2월 15~20일(5박6일)간 태국 치앙마이 방콕 등 5개 도시역사 문화탐방을 마치고 귀국.

한일 민간교류 강화 연설



★김건이 회우 = 2월 11일 일본 미야자키(宮崎)에서 열린 일본소안(笑顔) 공화국 창립 24주년 행사에 한국대표로 참가, '한일 민간교류를 강화' 내용으로 연설.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취임



★오건환 본회 전 상임이사 = 3월 17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에 취임 한다.

회원 인솔 호주 뉴질랜드 여행



★김현 회우(2hyuns' travel club 대표) = 2hyuns' travel club 회원을 인솔하고 10일간 예정으로 호주 뉴질랜드 여행 중.

금융리더스 아카데미 1기 수료식



★윤종보 회우 = 2월 24일 오후 7시 서울 마포 가든 호텔 무궁화 홀에서 금융리더스 아카데미 제 1기 수료식을 가졌다.

제7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수상



★남시육 회우 = 서울대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악언론인회(회장 문창극)에서 제7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평화언론포럼 상임부회장



★최귀조 본회 이사 = UPF '평화대사' 편집위원장으로 2월 8일 열린 평화언론포럼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상임 부회장에 선임.

현소환 회우 명예 언론학 박사 학위



현소환 회우(IPI 종신회원 겸 본부 이사·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가 2월 18일 대구 계명대에서 명예 언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계명대는 "현회우가 32년간 한결 같이 통신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한국 언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뒀으며 수습 기자로 시작, 최고경영자(CEO)까지 올라 언론인들의 본보기가 된 점, 은퇴 후에도 언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 등을 인정해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4]

김후란 회우 서울대 명예졸업장받아



한국의 대표적 원로 시인인 김후란 회우(본명 김형덕)는 2월 25일 오후 4시 서울대 입학 57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다. 김 회우는 1953년 부산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범대 가정교육학과에 입학했지만 1957년 한국일보에 입사하면서 서울대에 더 이상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처리 됐다. [4]

사우회소식



한국일보사우회 김충한 회장 선임

한국일보 사우회는 지난 2월 18일 낮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대강당에서 2010년 정기총회 겸 신년 교례회를 갖고 김충한 전 한국일보 부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신임회장은 한국일보 오사가 지국장 겸 특과원 등을 역임했다.

이날 총회에는 윤임술(88) 전 언론연구원장과 김종하 전 국회부의장, 이원홍 전 문화공보부장관, 이종승 한국일보 사장, 권혁승 전 한우회 회장, 손일근 서울대학교 총 동창회 상근부회장, 제재형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회 회장,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 등 전 현직 회우 15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경향신문 사우회(회장 이형균·본회 논설위원장)= OB산악회는 3월 6일 정오 남한산성에서 금년도 시산제를 올린다. 전화 02-735-5608

★서울신문 사우회(회장 신우식·본회 고문)= 3월 18일 정기총회 개최 전화 02-200-9581

★한국경제 사우회(회장 엄영섭) = 3월

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청계산에서 시산제를 올린다. 전화 02-391-0107

★KBS 사우회(회장 김수웅·본회 회우) - 1월 20일부터 26일 까지 인사동 한국 미술관에서 서예전시회. - 2월 17일 KBS별관 10층으로 사우회 사무실 이전 전화 02-781-8186/8187

3월 생신 축하드립니다

대한언론인회는 회원 수첩을 근거로 매월 생신을 맞이하시는 회우들의 명단을 신습니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가나다순 존칭 생략)

3월 1일(김진섭 박기정 이경문 정서진) 3월 2일(김태운 천승준) 3월 3일(이해성) 3월 4일(박진서 송충섭) 3월 5일(이전문 이흥우) 3월 6일(김준하) 3월 7일(서병주) 3월 8일(여영무) 3월 10일(권영국 이대영 임응식) 3월 11일(정광현) 3월 12

일(박권흠 이연상) 3월 14일(장준식) 3월 16일(서강화) 3월 18일(최재규 최호 홍원기) 3월 19일(김정일) 3월 20일(구만완 임인흡 지용우) 3월 21일(김신희 동홍석 이청수 정용기) 3월 23일(장덕상 최종수) 3월 25일(구월환 윤병찬) 3월 26일(구종서) 3월 28일(임흥빈 전용호 정성진) 3월 29일(송선무) 3월 30일(김유동 김천길) 3월 31일(조동오)

성문용 고문변호사 위촉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회원기회장은 2월 22일자 로 성문용변호사를 대한언론인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4]

▶ 회비납부

2009년 정문식(09) 2010년 강병우 박찬호 권도홍 김경태 김명구 김익수 김한구 노철용 설임윤 송두빈 신정호 심의표(08-10) 우경식 윤재홍 윤홍섭 이운래(09.10) 이종준 전용호 조광식 주영관 진철수(09.10) 최귀조 한양인 홍승국(08-10)

▶ 주소·전화번호 변경

★곽노형 회우 = 서울 은평구 진관동 88 은평 뉴타운 124동 803호 (우)122-200
★김두근 회우 = 휴대전화 010-8395-4006
★김용발 회우 = 서울 은평구 진관동 88 은평 뉴타운 우물골 213동 1102호 (우)122-200

★최병요 회우 =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18-5 삼아 101-305 (우) 431-070

★황대연 회우 = 휴대전화 010-3716-7058

▶ 부음

★황우권 회우 = 1월 30일 모친상

Korea Run Again

대한민국의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KRA 한국마사회가 먼저 뛰겠습니다

- **녹색 뉴딜의 기수** : 친환경의 말(馬)산업으로 2012년까지 2조 6천 2백억 원의 경제효과 및 3만 명의 고용 효과 달성
- **우리 농촌 살리기** : 4대강 유역 거점 승마장 설치 · 저수지 주변 관광 레저산업 개발
- **상생과 협력** : 농 · 축산 발전을 위한 1천억 원 중소기업 상생펀드 조성
- **사회공헌 초일류기업** : 농 · 어촌사랑 기부금 및 복지차량 지원, 임직원 봉사단 KRA Angels 활동 및 펀드 운용, 장애아 재활승마 등 이웃사랑 실천

KRA 한국마사회

www.kra.co.kr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교과서

울겨울,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가다보면



순천만 철새도래지 - 2학년 2학기 [바른생활] '깨끗한 환경'

흑두루미, 흑부리 오리, 검은머리 물떼새...
교과서에서만 만나던 겨울의 친구들을 직접 보여주세요!
드넓은 자연 속에서 대한민국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아이의 생각도 꿈도 더 커집니다

아이에게 가장 재미있는 교과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입니다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